

# 인천의 아침을 여는 SUNNY FM 굿모닝 인천 90.7MHz

인천을 대표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굿모닝 인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아침 7시~9시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인천의 소식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엄선된 다양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합니다.



〈진행자 : 권혁철 기자〉

## 코 · 너 · 소 · 개

### 〈매일코너〉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 **조간브리핑** 꼭 알아두어야 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날씨와 교통** 날씨와 교통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요일코너〉

- 월요일 굿모닝 아메리카 / 현대인의 매너
- 화요일 굿모닝 오토클리닉 / 주간 SK와이번스 소식 부동산 소식
- 수요일 굿모닝 차이나 / 굿모닝 스위트홈 굿모닝 K리그
- 목요일 하석웅 박사의 인천 현안 점검 / 굿모닝 헬스 굿모닝 무비
- 금요일 인기검색어 / 글로벌 인천



www.sunnyfm.co.kr  
Tel.032)83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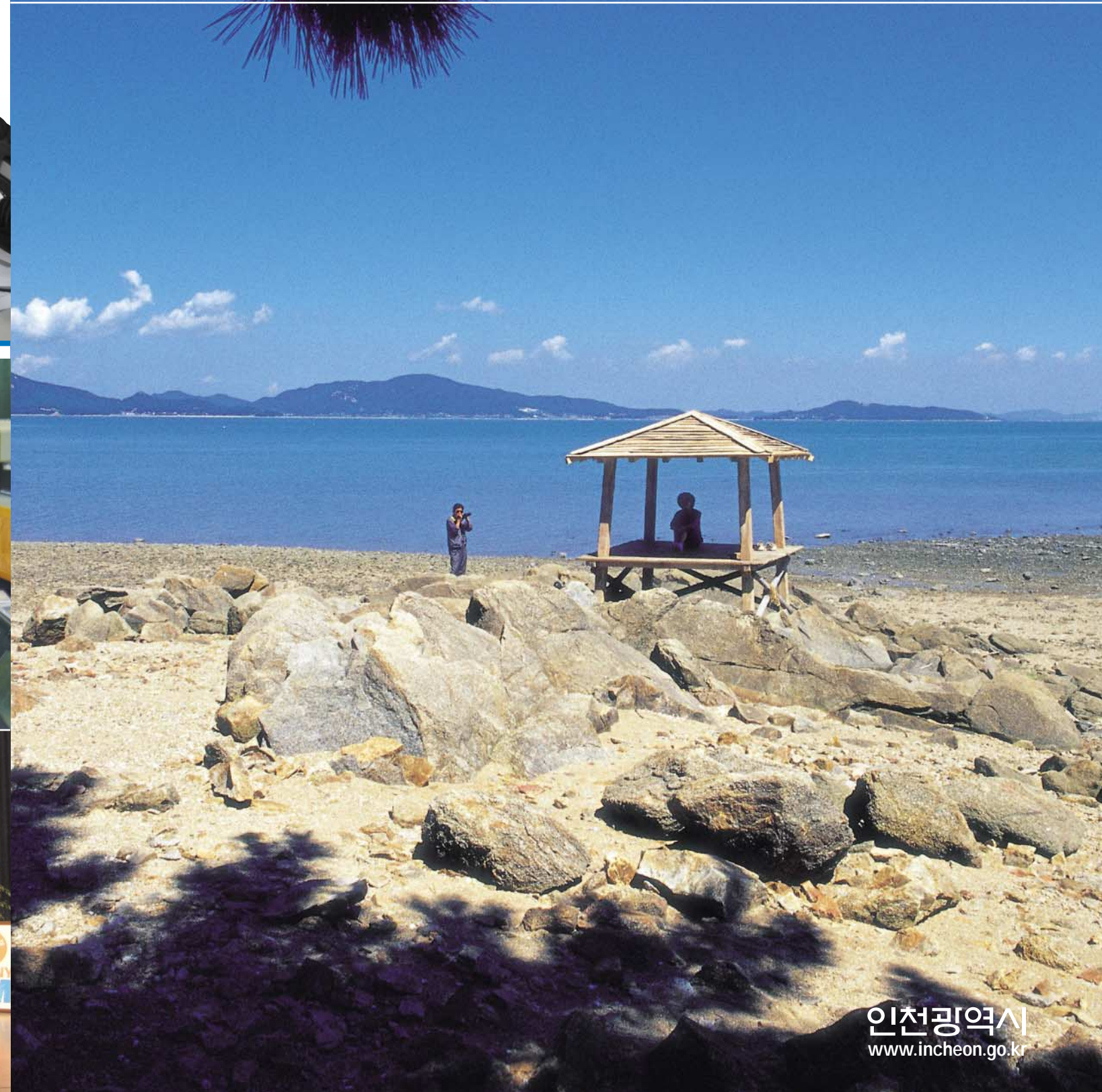


# Good Morning INCHEON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굿모닝인천

2006 | 8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 151층 마천루 하늘을 찌른다

인천 하늘에 151층짜리 초고층빌딩이 솟는다. 송도국제도시 6, 8공구에 세워질 151층짜리 쌍둥이빌딩(가칭 인천타워)은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해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 640m 높이, 연면적 783,000㎡ 규모의 인천타워는 호텔 등 숙박시설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사무실, 쇼핑몰 등을 갖춘 다목적 복합건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시와 포र्ट먼컨소시엄(미국 포र्ट먼홀딩스,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건설하는 이 빌딩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짓고 있는 160층짜리 ‘버즈 두바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인천타워 조감도 ▶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 굿모닝인천

2006.8 (통권 152호)



표지설명 \_ 참 맑고 푸르다.  
8월의 웅진군 시도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정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6년 8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2 151층 마천루 하늘을 찌른다
- 04 제4회 인천해양축제 (The 4th Incheon Ocean Festival)
- 06 해양축제 200% 즐기기
- 0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재개관 | 인천정신의 신전(神殿)으로 거듭난다
- 12 Cinema in Incheon | 필름 구축구석에 인천 담은 천하장사 마돈나
- 14 문화마을 순례 | 인천 사랑의 부부합창단
- 16 이달의 공연 |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 〈메이세컨〉 외
- 18 2006 Incheon & Arts
- 19 '2006 인천 & 아츠' 시민문화프로그램 V | 마에스트로와 친구들 트리오
- 20 굿모닝인터뷰 | 박창규 인천광역시시장과의 만남
- 22 굿인천 굿뉴스 | 우리시 1등 광역시로 평가 외
- 26 경제자유구역 뉴스 | 국제도시 공원에서 전통문화 즐긴다 외
- 26 시의회 소식 |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외
- 27 굿모닝리포트 | 2014 아시안게임유치 경과보고
- 28 도시재생사업 | ⑦ 정오 거리 재생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주변사업
- 32 동서남북 | 인천소비자연맹 세탁물심의위원회
- 33 줌인 |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 34 굿모닝時評 | 버스터미널의 아기자기한 이야기
- 35 김치 찰칵
- 36 아이들과 함께 동네 한바퀴 | 인천항 갑문
- 40 인천음식 요리조리 | 화평동 냉면
- 42 인천시민은 국제시민 | 수프는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 43 아심만만 재테크 | 수많은 종류의 펀드들... 나와 관련된 펀드는?
- 44 만화로 보는 옛날 옛적에 인천은 ⑦ | 연개소문의 고향은 강화도
- 46 참살이 동의보감 | 여름철 건강관리
- 47 Youthzine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인천지역 워크샵
-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낯선 반항아의 얼굴, 시립극단 차광영 씨
- 52 글마당 생각마당 | 이번달 주제 '휴대폰'
- 54 Info Box | 인천 물 사랑 사진 공모전 열립니다 외
- 58 세 · 상 · 만 · 사 · 仁 · 川 · 萬 · 寫 | 도심 속 인어가가씨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광고문의 (032-440-2071)



# 바다와 함께! 인천과 함께!

기간 \_ 8월 4일(금) ~ 6일(일)

장소 \_ 용유도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일원

문의 \_ 해양축제기획단 (435-7100, 7102, 7103 / [www.oceanfestival.net](http://www.oceanfestival.net))

인천의 여름은 바다를 뜨겁게 달굴 해양축제가 있어 즐겁다. 그 네 번째 행사에 가보자. 유람선을 타고 인천 앞 바다를 제대로 감상해 보거나 공기부양정을 타고 무인도를 경험해 보는 체험도 괜찮겠다. 무대에서 열리는 7080 콘서트를 비롯해 경축음악회, 해변가요제를 구경하는 맛도 쏠쏠할 터이다.

특히 올해는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이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아이들과 함께 주변의 호텔에 묵으면서 잠자리와 먹거리를 해결하고 해양축제의 프로그램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해양가족캠프를 마련했다.

밤이면 별빛을 조명삼아 바닷가를 걷거나 화려한 불꽃축제를 감상하노라면 열대야도 얼씬 못할 것이다.

## 놓치지 말자, 해양축제 Best 5

축제가 펼쳐지는 왕산해수욕장은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물놀이하기에 적당한 해변이다. 하지만 이왕 맘먹고 나섰다면 해양축제를 제대로 즐겨볼 일이다. 흥겹게 펼쳐지는 이벤트나 무대 공연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알짜배기 프로그램을 놓치면 아쉽다.

### 해양가족캠프

8월 4일(금)~6일(일)



일반 피서관광객들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숙박과 아침식사까지 포함된 패키지세트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왕산해수욕장 근처 가족호텔에 묵으면서 해양레포츠체험, 해양선상투어, 해경공기부양정 승선체험, 맨손고기잡기, 스킨스쿠버다이빙 등 여러 가지 축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참가비** : 25만원(2박3식), 4인 기준
- **참가방법** : 축제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입금.
- **숙박장소** : 워너스호텔, 씨월드호텔, 인천비치호텔

### 해양선상투어

8월 4일(금)~6일(일)



연안부두에서 인천 앞바다 코스를 도는 호화유람선에 올라 인천 앞 바다를 감상하면 인천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할지도 모를 일이다. 700톤급 호화유람선 하모니호는 연안부두~월미도~갯문~작약도~영종대교~무의도~팔미도~송도신도시~연안부두에 이르는 코스를 80분 동안 천천히 바다위를 항해한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다 배 안으로 눈을 돌리면 러시아무용단, 중국기예단 등의 선상공연이 펼쳐져 또 다른 재미를 준다.

- **참가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후 참가비 입금
- **참가비** : 성인 - 3천원, 어린이 - 2천원
- **운행시간** : 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30분  
오후 3시 / 오후 4시30분 / 오후 6시

### 해경공기부양정 승선체험(무인도체험)

4일(금)~6일(일) 14:00~16:00

해양가족캠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은 해경 공기부양정을 타고 무의도 앞에 떠 있는 무인도인 사렴도에 내린다.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는 섬에서 천연사구와 갯벌,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로빈슨크루소가 돼 보는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다.

- **참가방법** : 가족캠프 참가자는 우선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참가자는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가족캠프 90명 포함 180명)
- **참가비** : 무료

### 팔미도 등대견학

8월 4일(금)~6일(일) 09:30~17:30

팔미도등대는 1903년 6월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이다. 팔미도는 행정구역상 중구 무의동 산 372로 인천에서 바닷길로 13km 정도 떨어진 섬이다. 이 등대를 초·중고등학생들이 둘러보며 등대의 역사와 역할,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때문지 않은 섬을 둘러보며 산책하는 맛도 색다르다.

- **참가인원** : 100명 (1일 1회 30명 제한)
- **참가방법**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사전접수 ([www.portincheon.go.kr](http://www.portincheon.go.kr))
- **참가비** : 무료



### 맨손고기잡기 체험

4일(금) 15:30~17:30

5일(토) 17:00~19:00

6일(일) 18:00~20:00

왕산앞바다에 해변에 길이 400m, 높이 3m의 그물이 둘러쳐진다. 밀물 때 뱃모르고 이곳까지 '마실' 나왔던 붕장어, 광어, 농어, 놀래미 등은 물이 빠지면 영낙없는 수족관속 물고기가 되고 만다. 미끌거리지 않는 장갑 한 켤레만 있으면 이놈들은 저절로 내차지가 되기 마련.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 앞바다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맨손고기잡기 체험 현장이다. 내 손으로 잡은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부녀회 먹거리촌에서 바로 싱싱한 먹거리로 태어나 입맛을 자극한다.

- **참가방법** : 축제홈페이지를 통해 하루 200명까지 사전 접수
- **참가비** : 성인 - 8천원  
어린이 - 5천원 (5세 미만은 무료)



#### ■해양축제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장 소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10:00~17:00	인천항 갑문개방			월미도 갑문
10:00~17:00	해경함정 공개			해경부두
10:00~18:00	해양레포츠 체험 (모터보트 / 바나나보트 / 제트보트 등)			왕산해수욕장
10:00~18:00	스킨스쿠버 다이빙 체험			왕산앞바다
11:30~13:00	해양선상투어 (1회)			연안부두
13:00~15:00	이벤트 행사 (맥주빨리마시기 / 팔빙수빨리먹기 등)			왕산해수욕장
13:30~15:00	해양선상투어 (2회)			연안부두
14:00~16:00	해경공기부양정 승선체험 (무인도 체험)			사렴도
15:00~17:00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왕산해수욕장 특설무대
15:00~16:30	해양선상투어 (3회)			연안부두
15:30~17:30	맨손고기잡기 체험	17:00~19:00 맨손고기잡기	18:00~20:00 맨손고기잡기	왕산해수욕장 갯벌
16:30~18:00	해양선상투어 (4회)			연안부두
18:00~19:30	해양선상투어 (5회)			연안부두
18:30~19:00		식전공연		왕산해수욕장 특설무대
19:30~21:30	7080 낭만콘서트 (전야제)	경축음악회 (SBS FM 공개방송)	제1회 인천해변가요제	왕산해수욕장 특설무대
21:30~22:00	해상불꽃축제			왕산해수욕장 해상
전시행사	인천시 관광홍보관, 수도권 관광사진전, 2014 아시안게임 유치홍보관, 해변모래조각전			



# 해양축제 200% 즐기기

**스킨스쿠버다이빙 체험**  
8월 4일(금)~6일(일) 10:00~18:00  
왕산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고  
다이빙을 하면 바닷속 물고기와  
대화도 나눌 수 있다.

**해양레포츠체험**  
4일(금)~6일(일) 10:00~18:00  
제트보트, 모터보트,  
바나나보트를 타고  
바다 질주. 가족캠핑,  
선상투어, 맨손고기잡기,  
청소년해양견학에  
참가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

**청소년 해양견학 투어**  
8월 4일(금)~6일(토)  
선상투어, 해경함정견학, 갑문견학,  
해양레포츠체험, 맨손고기잡기 등  
미래 인천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인천을 바로 알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행사

**인천항 갑문 개방**  
8월 4일(금)~6일(일)  
인천항 갑문(월미도)을  
일반인은 자유롭게 방문견학,  
단체는 인천항만공사로  
사전예약 신청 후 참가



**해경함정 공개**  
8월 4일(금)~5일(토) 10:00~17:00  
일반인은 자유롭게 방문견학,  
단체의 경우 해양경찰청홈페이지  
(www.kcg.go.kr)  
사전예약 신청 후 참가

**인천시장배 요트경기대회**  
8월 3일(목)~6일(일)  
왕산해수욕장 앞바다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 2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대회



**해양축제 경축음악회**  
8월 5일(토) 19:30~21:30  
SBS라디오 '김영철과 조갑경의 춤추는 2시'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수퍼주니어, 장윤정, 럼블피쉬, 듀크,  
타이푼, 이지혜 등  
인기가수 12팀이 출연하는  
화려하고 열정적인 라이브공연



**7080낭만콘서트**  
8월 4일(금) 19:30~21:30  
7080년대 음악카페를 연상시키는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  
정수라, 유심초, 임지훈, 유익중, 소리새 등  
7080 인기가수 공연

**제1회 인천해변가요제**  
8월 6일(일) 19:00~21:30  
사진 예선을 거친 전국의 실력있는  
아마추어 가수들이 참여하는  
신인가수의 등용문.  
개그맨 엄경환의 사회로  
13인조 밴드와 초청가수 출연



**해상불꽃축제**  
8월 4일(금)·5일(토) 21:30  
2천4백여 발의 불꽃과  
배경음악이 조화를 이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차원 다른 불꽃축제

**이벤트 행사**  
8월 4일(금)~6일(일) 13:00~15:00  
누구나 참가해 푸짐하게 상품을  
타갈 수 있는  
'맥주와 팔미수 빨리 마시고 먹기 대회'와  
커플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얼음판에서 오래 버티기 대회' 등





# 인천정신의 신전(神殿)으로 거듭난다

개관한 지 환갑을 맞은 시립박물관이 지난달 10일, 2년 4개월간의 중·개축공사를 통해 시설과 전시유물을 대폭 확충하며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제 시립박물관은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역사의 재발견 현장, 복합문화 공간 그리고 시민들의 교육터와 휴식터 역할을 할 것이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 # 옛사람 흔적 찾기

박물관은 한 지역 문화의 정수를 상징한다. 화려한 보물창고가 아니라 정신의 신전(神殿)이기에 더욱 그렇다. 여행할 때 제일 먼저 그 도시의 박물관을 둘러보면 그 도시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박물관은 도시가 탄생하고 발전해 온 이야기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박물관 기행은 누군가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이다.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걸 남긴 사람들의 일상과 그들의 숨결 그리고 애환까지 만나게 된다. 흔적과의 만남은 그래서 신비롭고 신선하다. 청량산 기슭에 자리 잡은 시립박물관에 들어서면 수만 년 전의 선사시대부터 격동의 20세기까지 우리지역에서 살아온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되살아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란 타이틀이 붙은 인천시립박물관은 재개관을 통해 이전의 ‘정체된 박물관’ 이미지를 벗어나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 동북아의 허브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박물관, 온 가족이 즐겁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 # 보고, 느끼고, 즐기고... 복합문화공간 탄생

이번 리모델링으로 전시실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천 763평으로 종전보다 배나 늘었다. 전시실 수도 3개에서 6개로 늘어났고, 그동안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구석기시대 유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된다. 시립박물관은 5개의 상설전시장 외에 지식묘와 철제 범종 등이 전시돼 있는 야외 전시장과 우현 고유섭 동상이 세워져 있는 우현마당과 기획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실 외에도 박물관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초대 박물관장 이경성 선생의 호를 따서 이름 붙인 200석 규모의 복합공연장 석남홀과 탁본뜨기와 만화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체험교실

과 정수사 기와 쌓기, 꽃창살 퍼즐 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체협코너가 마련돼 있다. 또한 기념품과 도록 등을 판매하는 뮤지엄숍을 비롯해 카페, 도서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 역사실 I (선사시대-고려시대)

인천의 문학산 일대와 계양산 주변은 선사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닌 곳이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들은 인천 역사의 시계바늘을 한참 되돌려놓는다. 역사실 I에서는 계양구 동양동에서 발굴된 토광묘를 비롯해 돌도끼, 돌검 등 아득한 시간에 우리지역에서 살아온 옛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또한 경서동에서 출토된 녹청자와 강화 지역에서 발굴된 각종 도자를 비롯해 고려

시대 인천의 대표 문종인 인주이씨의 ‘이 자연모지명’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공항건설, 택지개발 등 도시 확장으로 인해 발굴된 유물들이 새롭게 전시되고 있다.

### 역사실 II (조선시대-일제강점기)

조선시대 인천에는 부평이씨, 파평윤씨, 연일정씨 등 이른바 ‘빠데 있는 집안’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역사실 II에서는 남동구 도림동 파평윤씨 소남종택의 고문서 등 사대부 집안의 민속품과 선비의 그림

과 책 등을 통해 조선시대 생활상과 선비의 기품과 학풍 등을 느낄 수 있다.

개항장이었던 관개로 인천에는 개화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들을 대하는 순간 신기함에 앞서 우리는 한국근대사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1918년에 완공된 인천항 갑문의 모형과 개화기 인천의 모습이 디오라마 기법으로 전시돼 있어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 인천의 옛 변화가였던 금파가(金波街)를 재현시킨 곳을 몇발짝 걸으면 타임머신 타고 100년 전 세상으로 훌쩍 가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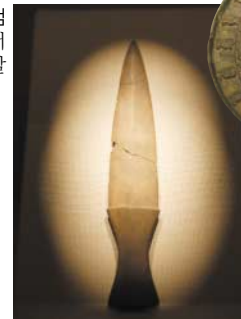
## 시립박물관에서 꼭 봐야할 유물 베스트 5



건칠여래좌상  
15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칠로 만든 불좌상 (시유형문화재 제13호)



창덕궁인정전 동액부분  
조선시대의 것으로 창덕궁 인정전에 걸려있던 도깨비 기와이다. 주로 고건축의 내림마루 끝에 걸어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마제석검  
선사시대 인천지역에서 출토된 돌칼



청동십이지신상문경  
고려시대의 유물로 청동으로 만든 거울에 십이지신상이 새겨져 있다.



단령  
조선시대 석남동 회곽묘에서 출토된 단령(복식). 관리들이 궁궐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입는 관복이자 의례복이다.



## 공예전시실

찬란한 우리문화의 진수를 맛 볼 수 있고 옛 선조들의 멋과 풍류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원저단경호, 광구병 등 삼국시대 토기부터 고려청자, 조선백자, 분청사기 그리고 청화백자 등 천년도공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명품'들이 전시돼 있어 우리나라 도자의 선과 색상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질 수 있다. 중국 명대에 제작된 관음보살상과 조선시대의 불상과 보살상이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고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여러 목제품도 전시돼 있다.

## 서화실

서화실에 들어서는 순간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학이 날며 솔바람이 분다. 서화실에 서는 강세황산수도 등 조선시대 선비들의 산수화와 문인화 그리고 서예 작품 등이 전시돼 있다. 그들 작품 앞에 서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어느새 문인들과 정신적 교감을 나누게 된다.

인주이씨가 외가였던 대각국사 의천의 탐비와 얼마 전까지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있다가 우리 땅에 돌아 온 북관대첩비의 탁본도 볼 수 있다.

## 기증실

1946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박물관에 기증 혹은 기탁한 유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인천 태생으로 한국미술사의 선구자적 업적을 쌓은 우현 고유섭 선생의 유품과 저작물이 전시돼 있다. 서구 공촌동에서 출토된 숙의문씨 묘지석 2매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유물들을 만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기증유물들이 교체 전시된다.



1

## # 세 도시의 동변상련 특별전시

시립박물관은 개관 60주년 기념행사로 오는 9월 10일까지 '도시기행-상하이, 요코하마 그리고 인천'이란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인천과 중국 상하이, 일본 요코하마는 공통점이 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서구 근대문물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관문도시들이다. 인천은 1883년, 상하이는 1843년, 요코하마는 1859년 서구 열강세력에 의해 개항을 강요당했다. 개항 시기는 다르지만 이들은 각국의 근대문물 수용의 창구이자 세계인이 공존하던 국제도시였다. 제국주의 침탈의 교두보이자 식민도시였던 이들 도시는 개항 후 어떻게 변했을까.

시립박물관은 지난해 상하이시 역사박물관과 요코하마 개항자료관, 요코하마 도시발전기념관과 협의해 개항 당시 각 도시와 관련된 유물과 각종 문서·지도 등을 대여하고, 자체 소장유물 등 모두 300여점을 파노라마식으로 전시하고 있다.

주제별로 보면 개항 전 도시풍경을 시작으로 도시의 형성과 개항과정, 조계(租界·외국인 치외법권 구역)의 형성과 확대, 근대건축과 도시풍경, 도시기반시설, 상공업과 무역 발전, 외래 문물의 전래, 도시의 외국인, 도시의 위기와 부흥 등으로 이뤄진다.

관람객의 흥미를 자아내기 위해 승선표를 받은 후 배를 타고 개항도시로 들어가 이들 도시 모습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체험하도록 했다. 우편소인 찍기, 인력거타기 등 체험코너와 사진 촬영 코너 등도 마련돼 있다.☀



1 풍전양조장 술통 2 조선시대 선비방 3 시립박물관의 발자취 전시공간 4 역사실 내부 모습

**관람안내 · 교통편** \_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어른은 400원이며 청소년과 어린이는 무료이다.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방문하면 유물해설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통편은 6, 8, 16번 시내버스를 이용해 송도유원지에 내려 5분 정도 걸으면 된다. 인천지하철 동춘역에서 740번 순환버스나 6, 8, 16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_ 440-6127)

## 박물관 옆 박물관

길병원 가천문화재단이 1995년 10월에 설립한 가천박물관은 지난해 12월 연수구 옥련동 청량산 기슭에 새보금자리를 마련해 이전했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인천지역 유일의 국보 (276호) 문화재인 초조본 유가사지문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1, 보물 13) 등 귀중한 유물들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더불어 태산요록, 향약제생집성방, 산거사요, 식물본초, 신응경 등 보물지정문화재로서 국내에서 유일본이거나 희귀본 의학서적 등도 소장하고 있으며 근·현대 의리기구와 자료들도 전시된다. 이와 별도로 1,300여종 5,200책에 달하는 고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창간호 서적(9,100여책 등록)을 소장한 창간호실을 운영한다.

※8월중에 다시 오픈할 예정이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은 휴관한다. 위치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뒷길로 흥륜사 입구 방면으로 가면 된다. (문의 \_ 833-4747)





# 필름 구석구석에 인천 담은 천하장사 마돈나

8월중에 개봉할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의 공간적 배경은 인천이다.

이 영화에서 인천은 배경이라기보다 중요한 소재다.

그저 인천에서 찍은 영화가 아니라 인천 자체가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역할을 하는 영화다.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sidusFNH, 반짝반짝 제공

지난 3월13일, 연안부두. 시간적으로는 봄이지만 바닷바람은 아직 매서웠다. 찬 바람 속에 올린 외침 한마디. “레디. 큐” 인천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천하장사 마돈나>(제작 : 싸이더스FNH, 반짝반짝)가 크랭크 인 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첫 촬영분은 성전환 수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돈을 입금한 동구가 흐뭇한 표정으로 자전거에 올라타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고등학교 1학년 똥보 소년 오동구(류덕환 분)는 육중한 몸

매와 달리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의 꿈은 ‘진짜’ 여자가 되는 것. 그것도 마돈나처럼 완벽한 여자가 되어 짝사랑하는 일어 선생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다.

여자가 되려면 수술비가 필요하지만 가진 거라곤 엄청나게 센 힘 하나뿐인 동구에겐 5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던 어느 날 날아든 낭보 하나. ‘인천시배 고등부씨름대회’ 우승자에게 장학금이 500만원이 지급된다는 소식이다. 뒤집기 한 판이면 마침내 여자가 될 수 있다. 마돈나가 되기 위해, 천하장사부터 되어야 하는 똥보 소년 오동구의 ‘여자가 되는 길’은 험하고 아찔하기만 하다.

주인공 오동구 역은 <웰컴 투 동막골>에서 강혜정을 야릇한 눈빛으로 보던 인상적인 인민군 소년병 류덕환이 맡는다. 그는 이 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씨름으로 유명한 부평 고등학교에서 씨름 연습을 시작했다. 영화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훈련복인 줄줄이 타이즈 한 장만 걸친 채 차가운 모래판을 뒹굴며 부평고 씨름 부원들과 똑같은 강도로 훈련에 임했다.



그밖에 동구 아버지역에 김원석, 씨름감독에 백윤식이 출연한다.

그럼 왜 인천인가? 메가폰을 쥔 이해영, 이해준 공동감독은 이 영화의 공간적 배경을 인천으로 잡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한다. “동구가 겪는 성장 시기는 대단히 가변적인 시기이다. 인천은 그런 동구를 대변할 수 있는 도시다. 도시는 도시이되 서울은 아니면서도 나름대로 중심인 인천이라는 공간이 그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무엇보다 두 감독은 씨름 명문고인 부평고와 씨름 명문대인 인하대가 있어 인천을 주저없이 택했다고 한다.

인천을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촬영을 마친 <천하장사 마돈나>는 8월에 유쾌한 웃음과 따듯한 감동을 머금고 관객을 찾아올 예정이다. ☀

## 인천이 묻어나는 영화 모습

항구, 공항, 바다, 섬 그리고 옛건물과 공장 등 인천은 그 자체가 세트장이다. 인천 곳곳에 카메라를 들이대면 곧 영화의 한 장면이 된다.



**실미도** 684북파특수부대 31인의 훈련병들이 겪은 3년간의 극비실화를 쫓은 영화 <실미도>는 실제로 무의도 앞에 있는 비운의 현장 실미도에서 촬영됐다. 영화가 사실을 토대로 했고 실제 현장을 영화세트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미도 기행은 실제와 스크린 사이를 넘나든다. 설경구, 안성기 등이 출연했다.

**고양이를 부탁해** 인천의 한 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스무살 여자들(배두나, 이요원, 옥지영 분)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일종의 성장영화다. 상영 당시 ‘좋은 영화’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영화에는 월미도,

만석동, 차이나타운 등 인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파이란** 중구청 주변의 변변찮은 3류 양아치 이강재(최민식 분)와 그와 서류상 결혼을 하고 코리아드림을 꿈꾸는 중국 여자 파이란(장백지 분)의 슬픈 이야기이다. 이 영화에서 인천은 바다 건너 온 중국의 3류 인생들이 한국의 3류 인생과 뒤섞여 사는 변두리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밖에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주인, 주방장, 종업원, 아버지와 딸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사랑을 담아낸 자장면

같이 달콤한 영화 ‘복경반점’(출연 김석훈, 명세빈, 친구)과 엘리트강패와 인천 룸살롱 마담의 대결을 그린 코믹액션물 ‘패밀리’(출연 황신혜, 윤다훈, 김민중)가 있다. 인천의 강력반 형사를 실제 모델로 삼은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출연 박중훈, 안성기, 최지우)와 인천형 경인전철에서 복학생이 터프한 엽기녀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코믹하게 푼 영화 ‘엽기적인 그녀’(출연 차태현, 전지현)도 인천을 스크린에 담은 영화이다.



합창으로 나누는 부부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전해지는

# 인천 사랑의 부부합창단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7월의 무더위를 잠시 가라 앉혀 주듯 가볍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자유공원 부근의 제일교회를 찾아갔을 때 입구에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섭외부장 배성대 씨의 환한 웃음에 인터뷰 전부터 마음이 따스해졌다.

연습실에 들어섰을 때는 미리 온 단원들이 준비된 차와 김밥을 먹으면서 매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는 기쁨을 나누는 정겨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8시가 되자 단원들은 지휘자 김영주 씨의 지도에 따라 발성연습으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다듬고 오늘의 연습곡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부르기 시작했다.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를 맡은 단원들의 다른 목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어 연습실은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다.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은 없어  
: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름다운 노랫말을 부르던 부부는 어느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의 존재를 마음으로 부르고 있었다.

틀린 부분은 다시 부르며 고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합창곡의 성격이 부부의 일상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부부합창단에 의해 아름다운 노래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사랑의 부부합창단'은 1987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창단되어 현재 국내 13개 지역, 해외 1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천에 '사랑의 부부합창단'을 창단한 안주백·김영주 씨 부부는 아들과 딸도 음악을 전공하는 음악가족이다. 단장 안주백 씨는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지휘를 해 온 인연으로, 지휘자 김영주 씨는 인천 YMCA여성 합창단 지휘자 활동을 바탕으로 뜻을 같이 하는 20쌍의 부부를 모아서 2004년 4월 '합창단'의 씨앗을 뿌렸다. 지금은 35쌍의 부부가 활동하는 어엿한 합창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안 단장은 크리스찬 부부가 함께 노래를 좋아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사랑의 부부합창단'이 그 창단목적에 맞게 단원들이 합창으로 부부 사랑을 이루어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의미를 두었다.

이 합창단은 그동안 두 차례의 정기 연주회, 그늘진 이웃을 위한 후원행사에 특별출연을 하는 순회연주를 통해 부부 사랑의 메아리를 전해 왔다. 가정의 달 5월 21일은 둘이서(2)하나(1)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부의 날로 이날에 열리는 정기연주회는 예술회관 전 좌석이 매진되어 합창단이 들려주는 사랑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는다고 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아는 합창단 부부들은 결혼가정 아이들의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해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매월 10명의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고, 정기 연주회 때 들어온 성금은 모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내놓고 있었다.

이들이 사랑으로 부르는 노래는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의 단비로 촉촉이 내려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배성대 씨는 합창단원 활동의 힘을, 연습이 있는 날은 다투던 부부들도 연습실로 들어오면서 웃고 들어와 돌아갈 때는 마음으로 화해를 하고, 부부의 대화가 많아진 것에서 찾았다. 연습이 있는 날이 바로 부부의 데이트날인 것이다.

안단장은 아이들이 먼저 '매주 목요일은 엄마, 아빠 노래 하러 가는 날'이라고 챙기면서 부모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했다. 제일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연습실이 평일에도 90%이상의 출석률을 보이는 것은 이곳에 오면 행복하고 그 행복의 힘으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원들의 경조사는 모두 달려가서 챙겨주기 때문에 외로웠던 부부들도 이곳에 들어와서는 든든한 힘을 얻고 있었다. 그는 인천에 소규모의 부부합창단이 많이 생겨서 연합체를 이루는 소망도 드러냈다.

교파를 초월한 이 단체는 크리스찬 부부로 노래를 좋아하며, 매주 연습에 시간을 내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다. 연주회에서 종교적인 노래와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노래를 반씩 부르는 것도 이 단체의 미덕이었다.

사랑으로 채워진 삶은 자기의 행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을 따스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주어 세상을 빛나게 한다.

두 번째 연습곡 '향수'가 부부합창단에서 아름답게 불려지는 것을 감상하고 돌아오면서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부라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들은 홍예문을 가득 덮은 담쟁이 잎을 아름답게 비추는 가로등처럼 따스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안주백 단장과 김영주 지휘자





###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

#### 메이세컨

그녀의 연주는 지극히 부드럽고 서정적이며 달빛이나 비 내리는 밤에 더없이 잘 어울린다. 5월에 피아노를 시작한 그녀는 줄리아드 음대에서 공부하며 보스턴의 브라운홀, 첼라홀 등에서 피아노독주회와 앙상블연주, A.C.M오 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했다. 귀국 후에는 문화일보 홀에서 귀국 독주회, 예술의 전당에서 듀오 피아노 연주회 등을 가졌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롱한 피아노 선율과 첼로, 바이올린, 플루트의 다양한 앙상블을 선보인다.

**일시** \_ 8월 19일(토) 오후 2시, 5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전석 7,000원    **문의** \_ 420-2020

### 춤마당 흥마당 殘響(잔향) II

지난해 여름 인천시립무용단은 '잔향(殘香)' 공연을 통해 상도실장구 등 장구수들의 기량을 선보이며 우리 풍물의 신명과 흥을 관객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나누었다. 후속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잔향(殘香)II'는 관객의 안녕과 수복을 비는 비나리부터 판굿까지 우리 풍물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일시** \_ 8월 30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R석 10,000원 / S석 5,000원

**문의** \_ 시립무용단 (420-2788)



### 청소년과 함께하는 고전명작 연극 시리즈

#### 김유정의 불 뿜 불



청소년들이 어렵게 느끼는 고전문학작품을 연극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기획 제작한 무대이다. 김유정의 대표작인 소설〈

봄봄〉을 비롯해 〈금파는 공벌〉〈소낙비〉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했다.

**일시** \_ 8월 4일(금) 오후 5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전석 7,000원

**문의** \_ 420-2020

### 유진박과 함께하는 신명의 소리여행

#### 打 & ROCK 콘서트



우리민족의 고유한 풍물소리(타악)와 서양의 Rock과 전자바이올린이 함께 결합함으로써 歌 舞 打. Rock이 어울려 우리소리를 재창조한 퓨전타악 퍼포먼스이다. 한국의 전통 풍물 가락과 Rock의 비트 가락 그리고 서양의 대표악기인 바이올린 음악이 어우러져 웅장함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타악팀 전자미당예술단 (서광일)과 Rock팀 비추럴푸드(정유천) 그리고 전자바이올린 유진박과 제이유가 무대에 선다.

**일시** \_ 8월 19일(토) 오후 3시 / 20일(일) 오후 2시, 7시

**장소** \_ 계양문화회관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7,000원

**문의** \_ 풍물패진치마당 (501-1454)

### 콩짜~콩짜~ 신나는 클래식

#### Funny Band의 피크닉

Funny Band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우리나라 최초의 의 브라스 퍼포먼스 그룹이다. 전통 클래식뿐 아니라 Jazz, 영화 OST, POP, K-pop 등 음악의 한계를 두지 않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공연을 선보인다.

그들의 공연은 전통적 금관 5중주의 기본개념을 완전히 탈피해 움직이는 음악회, 관객이 하나되는 음악회로 귀로 듣는 즐거움 뿐 아니라 눈으로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할 것이다.

**일시** \_ 8월 13일(일) 오후 2시, 5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학생 8,000원

**문의** \_ 한국예술경영협회 (811-055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div> <div>이탈의 展&lt;/</div>					

※ 공연 및 전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 2006 Incheon & Arts



##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PO) 재창단 기념콘서트

1997년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7개국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창단된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0년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APO가 6년 만에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연주자들과 함께 창단10주년 기념콘서트를 갖는다.

6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창단 1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는 시카고심포니, 뉴욕필, 뮌헨필, NHK심포니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에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연주자들과 아시아 정상급 오케스트라단원들이 대거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스토리 교향무곡' 그리고 모리스 라벨의 '라 발스'가 연주된다.

**일시** : 8월 4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서울공연 : 8월 5일(토) 오후 8시 / 예술의 전당)  
**티켓** : R석 5만원 / S석 3만원  
**예매** : 엔티켓 1588-2341 /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 420-2020

'인천&아츠'는 우리시가 주최하고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기획한 새로운 형식의 국제예술제이자 예술과 음악교육 페스티벌이다.

지난해 도쿄필하모닉 내한공연, 여름 워크샵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초청 연주회 등 굵직한 공연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해 3회에 그쳤던 시민문화프로그램을 10회로 늘리고, 클래식 음악회에 한정되었던 공연들을 무용, 뮤지컬,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 2006 인천 & 아츠 여름 워크샵

###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APOA)

8월 6일(일)부터 8월 12일(토)까지 정명훈을 비롯한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의 악장과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음악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아카데미는 아시아의 재능 있는 음악인들에게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의 훈련과 음악코치, 그리고 풍부한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각 파트별 레슨, 실내악 레슨, 그리고 리허설과 공연참여 등 오케스트라 연습시 필요한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APOA 여름워크샵 특별연주회〉

**일시** : 8월 11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1만원 / S석 5천원

### 지휘 워크샵 (Conducting Workshop)

지휘 워크샵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젊은 지휘자들에게 전문적이며 실제적인 실습평가를 통한 지휘 훈련과정이다. 학과는 지휘기술, 연출, Score Study, 분석, 리허설 기술, 그리고 연주자와의 대화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어 참가자들에게 제공돼 매우 중요한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지휘 워크샵에는 마에스트로 정명훈, 아릴 레머라이트, 주오황첸이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 '2006 인천 & 아츠' 시민문화프로그램 V

# 마에스트로와 친구들 트리오

세계가 사랑하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원래 피아니스트이다.

4세 때 피아노를 시작해 3년 만에 서울시향과 협연하고

1974년 차이코프스키 콩쿨에서 한국인 최초로 피아노부문 준우승을 차지하며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지휘로 선회했을 때

세계의 음악애호가들은 마에스트로인 그에게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피아니즘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떨치지 못했다.

정명훈은 간간히 〈정트리오 연주회〉나 실내악콘서트인 〈7인의 음악회〉 등을 통해 소탈하면서도 영감이 넘치는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다.

이번 시민문화프로그램 무대에서 정명훈은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는다.

일본의 보배 바이올리니스트 다이신 카지모토와 하버드대학 재학생인 첼리스트 고봉인 등 한일 양국의 차세대 연주자들과 함께 트리오 무대를 꾸민다.

다이신 카지모토 특유의 맑고 고운 바이올린 소리와 고봉인의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첼로 음색을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함축적이고 무게 있는 피아노가 받쳐줌으로써 멋진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토벤 '피아노트리오 제5번 라장조 OP. 70-1, '유령', 브람스의 피아노트리오 나장조 OP.8,

그리고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3중주 가단조 작품 50 '어느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 등을 들려준다.

**일시** : 8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티켓** : R석 5만원 / S석 3만원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예매** : 엔티켓 1588-2341 / 인터파크 1544-1555 / 티켓링크 1588-7890



바이올리니스트  
다이신 카지모토



첼리스트 고봉인

## '2006 인천 & 아츠' 시민문화프로그램 VI

# Jazz Festival in Incheon

뜨거운 한 여름밤에 시원한 재즈 선율이 울려 퍼진다. '정선과 친구들', 리오넬 루에케 트리오, 커트 로젠윙클 그룹이 공연한다.

**일시** : 8월 25일(금) 오후 7시 30분

8월 26일(토) 오후 7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3만원 / S석 2만원

**예매** :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 2006 시민문화프로그램 일정

시민문화프로그램은 클래식, 재즈, 크로스 오버, 아카펠라,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준 높은 예술작품들을 선별하여 시민음악회 시리즈의 형태로 연중 소개하고 있다.

2월 19일(일) : 요코 코마츠바라 무용단 플라멩고 내한공연  
 4월 15(토), 16일(일) : 유니버설 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5월 13일(토) :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엄마하고 나하고〉  
 6월 21일(수) : 베이스 4중주단 〈The Bass Gang〉 연주회  
**8월 22일(화) : 마에스트로 & 친구들 트리오**  
**8월 25(금), 26일(토) : Jazz Festival in Incheon 〈정선과 그 친구들〉**  
 9월 29일(금) : 〈소프라노 이네싸 갈란테〉 내한공연  
 10월 27(금)~29(일) : 뮤지컬 〈비밀의 정원〉  
 11월 19일(일) :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 내한공연 (정명훈 지휘)  
 12월 16일(토) : 아카펠라 그룹 〈리얼그룹〉 내한공연  
 12월 31일(일) : 제야 음악회



# 마음은 초심으로 의정활동은 베테랑으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4일 제148회 임시회(개원)를 열고 33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박창규 의원을 선출했다. 기초의원 경력을 거쳐 연속 3선을 지켜온 15년 경력의 베테랑의원 박창규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제5대 1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5대 1기 의장직이라는 중차대한 직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동료의원들과 265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우리 인천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인천광역시 의회의 대표자로서 더욱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인천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요?

265만 인천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시찰을 통해 몸소 느끼면서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활성화 추진과 누구나 평등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시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전반에 대한 발전 지향적 대안 제시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의회 대표자로 지방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의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고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갈등의 조정을 통한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와 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요?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두 기관 모두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언제든지 힘을 합하여 공동목표를 향하여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의 경제중심을 위한 기반구축, 지역경제활성화, 자활형 복지도시건설, 국제도시위상에 걸맞는 주거·교통·환경 여건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 구도심의 재창조 등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공동협력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시행됩니다.

의정활동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5대 의회부터는 의원수도 29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도 이제 유급화되었습니다. 또 총 120일로 한정되어 있던 회기일수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예전보다 많이 조성됐으며 시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회도 공부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그리고 21세기 지방의회에 맞는 보다 전문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식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해 의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 더 큰 책임감을 느껴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더 충실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들려 주시지요.

인천광역시 5대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중책을 맡겨주신 265만 인천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국제도시 인천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인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박창규 의장 주요 프로필

- 인천송의초등학교, 동인천 중·고등학교 졸업
- 시립인천대학교 토목환경시스템 공학과 졸업
- 시립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 남구의회 제1~2대 의원, 제2대 부의장
- 인천광역시의회 제4대 1기 부의장
-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검사 대표의원
- 인천전문대 명예교수, 인하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인천광역시체육회 공동협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고문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인천광역시연맹총재
- 인천시민프로축구단 감사
- 사단법인 인천전통편사놀이 보존회 회장

## 제5대 제1기 인천광역시의회 원구성

제1부의장에 노경수의원과 제2부의장에 고진섭의원이 선출됐으며 5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제5대 1기 시의회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최병덕	유천호	강석봉	김을태
간사	김용재, 이은석	조남휘, 박승희	이은석, 김용재	윤지상, 한도섭	이재호, 성용기
위원	박승희, 성용기, 윤지상, 이재호, 조남휘, 한도섭,	고진섭, 김소림, 신영은, 이근학, 이상철	김용근, 오흥철, 이명숙, 정종섭, 최종귀	김성숙, 노경수, 박희경, 배영민, 지정구	강문기, 강창규, 문희출, 이병화, 허식



## 민선4대 취임식 개최



지난 7월3일 인천광역시장 취임식이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기관장, 역대시장, 군부대장, 의정회원 및 시의원 당선자, 유관기관 등 각계 초청인사 1천 500여명이 참석했다. 안상수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국민소득 3만불을 견인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인천과 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올 것이며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의 청사진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인천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공식행사와 함께 수봉공원 현충탑 참배, 시립예술단 식전공연 등으로 검소하게 진행됐으며

취임식을 통해 동북아 허브도시로 부상하는 인천민선 4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의 \_ 시 총무과 440-2412

## 미술은행제 도입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해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미술은행제도가 도입된다. 인천문화재단은 오는 10월까지 인천미술은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미술은행제도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4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4점의 미술품을 매입했으며 올해 5천만원의 미술품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미술은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문의 \_ 인천문화재단 455-7100

## 노인취업정보센터 개소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해 보급하고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인천광역시 노인취업정보센터가 지난달 12일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취업박람회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민간기업의 노인인력을 채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훈련을 마련해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사회진출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현재 각 군·구별 취업센터를 중심으로 개별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센터개소로 광역단위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고용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0

## 국·공립 보육시설 증설

현재 53개인 국·공립 보육시설이 2009년까지 11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시는 올해 10곳, 내년에 13곳, 2008년에 17곳, 2009년에 19곳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441억 원을 투입해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공시설, 유희시설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연수구, 강화군, 서구, 부평구 등 4곳에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680

## 해안가 철책 없애고 공원으로 조성



우리시는 송도와 연안부두 등 해안가 일대에 설치돼 있는 철책을 철거하고 공원과 산책로 등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시에는 전체 84km의 철책 중 16km가 철거됐으며 해군과 해경부두, 항만 등 군사 보안시설에 설치된 철책 6.2km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역의 철책(61.8km)을 철거할 예정이다. 우리시는 500여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철책을 없애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갯골유수지, 아암도

해상공원, 송도국제도시 남측 호안 등 8곳에 총연장 12.9km의 연안 친수공간 및 해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항만공항지원과 440-3390

## 남자 핸드볼팀 창단



지난 7월12일 문학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 남자 핸드볼팀 창단식이 열렸다. 이날 창단식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인천핸드볼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핸드볼팀은 임규하 감독, 이승재 코치, 박성립 등 선수 8명으로 구성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 남자 핸드볼팀의 창단은 그동안 실업팀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체육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천체육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창단에 앞서 올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의 보디빌딩팀과 인천교통공사 볼링팀이 각각 창단된 바 있다.

문의 \_ 시 체육진흥과 440-4084

## 노인 문화공간 바뀐다

남구와 동구, 서구에 노인문화센터가 올 연말까지 각각 건립된다. 노인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여㎡ 규모로 상담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다. 노인문화센터는 구월동에 건

립될 노인종합문화회관과 함께 저소득 노인 위주의 정책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문화공간으로 건립된다.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존 경로당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노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0

## 수도권 최대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중구 인천해역방어 사령부 이전 부지 약 16만㎡에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된다. 현재 전국 활어 유통의 30%를 차지하는 인천 활어도매조합 시설이 노후한 상태이며 부지확장 및 리모델링이 어려워 새로 유통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우리시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2천53억원을 들여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활어도매조합을 이전하고 항동의 인천종합어시장도 이 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 인천수협, 웅진수협, 경기수협 등 3개의 공판장과 수입수산물 집하장 등 물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문의 \_ 시 수산과 440-3210

## 강화-교동 연륙교 내년 착공

강화도~교동도 연륙교 건설이 군부대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에 착공된다. 우리시는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와 교동면 봉소리를 연결하는 길이 2.32km, 폭 12m의 교동 연륙교를 내년 9월에 착공해 2012년 1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교동도 연륙교가 건설되면 여객선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어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의 \_ 시 항만공항지원과 440-3390

## 우리시 1등 광역시로 평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광역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우리시가 4개 분야에서 최우수를 받아 전국 광역시중 1위로 평가됐다. 우리시는 일반행정을 비롯한 총 9개 평가분야 중 대민서비스, 보건복지, 여성복지, 문화관광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우리시는 그동안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주요 개별사업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해 전담관리하는 PM(Project Manager)제를 도입해 행정업무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직원에 대한 실적가점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실시하는 선택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우수분야에 대해 8억원 이상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 우리시가 중앙단위의 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문의 \_ 시 정책기획관실 440-2163



## 인천의제21, 6기 출범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상임회장 이흥우)는 지난 7월13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제6기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가졌다. 신임 이흥우 상임회장은 “의제의 기본 정신인 시민, 기업, 행정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모범사업을 발굴하고 시 행정에 지속적으로 반영시키며 기초의제와 마을단위 의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제는 제6기를 구성하면서 도시생태분과, 대기분과, 문화분과, 사회경제분과, 자연환경분과 등 5개 분과를 새롭게 정비했고 지난 4월과 6월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흥우 전 해반문화사랑회 이사장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기업대표로는 이인석 인천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과 행

정대표로 김동기 시 행정부시장이 각각 공동대표를 맡았다.

문의 \_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440-1544

## 제2시립치매병원 건립



우리시에 제2시립치매병원이 들어선다. 우리시는 35억원을 들여 연면적 2,600여㎡, 90병상 규모의 치매병원을 올해 안에 착공해 2008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병원을 위탁 운영할 의료법인을 선정한 뒤 부지를 기증받아 우리시가 건물을 짓고 의료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다. 병원이 설립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의 경우도 입원이 가능하며 입원비와 병원

비가 일반 병원에 비해 20%정도 저렴하다. 현재 우리시에는 서구 심곡동 시립치매병원(132병상)을 비롯해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시설 등 18곳(1,573병상)이 운영중이지만 우리시 노인성 치매환자가 1만5600여명으로 추산돼 병상에 비해 치매환자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문의 \_ 시 보건정책과 440-2730

## 지하도 상가용 상품권 발행

지하도상가와 공공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발행된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올 연말 지하도가 상품권 10만원권, 5만원권, 1만원권 3종류를 총27억원 규모로 발행해 내년 초부터 유통시킬 계획이다. 이 상품권은 시설관리공단 산하 계산체육센터, 송의체육관과 오는 9월에 개관할 삼산체육센터 등의 공공체육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시에는 부평, 동인천, 석바위 등 15개 지하도상가에 3천600여개의 점포가 입점해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하도상가의 경쟁력 약화와 경기침체 등

의 상황을 고려해 상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펼 계획이다.

문의 \_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570-7114

##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발간

우리시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수록된 ‘외국인 생활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한다. 영어와 한글이 병기된 가이드 북에는 외국인이 인천 체류시 필요한 긴급상황대처, 시내교통, 출·입국, 법률지식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가 이해하기 쉽게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외국인 생활가이드 영문 웹페이지로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로 중국어판과 일본어판 외국인 생활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3842

## 자전거 도로 늘어난다



우리시는 323억원을 들여 현재 260여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2010년까지 700km로 늘린다.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지구는 지하철과 연계기능을 갖춘 생활도로(122km)를 설치하고 부평, 계양, 남구에는 주거단지와 학교를 잇는 통행로(86km)를 만들 계획이다. 강화도와 영종도에는 바닷가를 끼고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해안순환도로(96km)를 만들 예정이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0

## 남항에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남항에 국제여객선을 접안할 수 있는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이 들어선다. 우리시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은 2011년

까지 중구 항동7가 1-2 남항 제3준설토투기장 앞 바다에 국제여객터미널과 카페리선들이 이용할 전용부두와 숙박, 위락시설을 갖춘 여객터미널을 짓기로 했다. 민간자본 5050억원을 유치해 10개 선석, 길이 2.9km 규모로 지어지며 40만평의 배후부지를 갖출 예정이다. 배후부지에는 호텔과 쇼핑시설,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이 들어선다.

문의 \_ 시 항만공항지원과 440-3380

### 교육청 소식

## 22개 초·중·고교 신설

인천시교육청은 3천968억원을 투입해 2008년까지 22개 초중고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중구 영종도에 인천국제고등학교, 계양구 병방동 양촌초등학교, 서구 검단지구 내 완정초등학교 등 14개 학교가 문을 연다. 2008년에는 부평구 십정동의 십정고등학교 등 8곳과 특수교육을 전달할 미추홀학교가 들어선다. 교육청은 이들 신설학교 중 4곳은 우리시 교육비 특별회계로, 18곳은 민간투자 사업방식인 BTL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08년까지 신설되는 초·중·고교〉

구분	이름	위 치	학급수	개교시기
초등	양촌	계양구 병방동3	30	2007년 3월
	정각	남동구 구월동 구월주공 재건축단지	42	2007년 9월
	은봉	남동구 논현동 논현2택지	24	
	논현	남동구 논현동 논현2택지 11블록	24	
	완정	서구 검단지구 30블록	24	
	능내	서구 마전동 산 119의1	36	2007년 3월
	해송	연수구 동춘동 송도국제도시 4공구	24	2007년 9월
	주안동	남구 주안6동 896의6 주안재건축단지	36	2008년 3월
중학	학익서	남구 학익동 544의14	36	
	간주	남동구 간석동 간석주공 재건축단지	24	
	동양	계양구 동양동 157의14	30	2007년 3월
	양촌	계양구 병방동 13의7	30	
	삼정	부평구 십정동 128의2	30	
	가현	서구 신현동 2의11	24	
	정각	남동구 구월동 구월주공 재건축단지	30	2008년 3월
	동방	남동구 논현동 논현2택지	33	
고등	만수	남동구 만수동 605의1	36	2007년 3월
	신현	서구 신현동 107의1	36	
	인천국제	중구 운서동 543의5	15	
	은봉	남동구 논현동 논현2택지	36	2008년 3월
	십정	부평구 십정동 160	30	
미추홀 특수학교		남동구 만수동 산32의3	26	

문의 \_ 인천시교육청 423-3303

## 인터넷방송으로 인천을 알린다

지난달 18일 우리시는 3차원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했다. 인터넷방송은 하루 8시간씩 주5일 방영되며 우리시 자체 제작과 지역 케이블방송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인터넷방송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인터넷 방송국 배너를 클릭하거나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http://ictv.incheon.go.kr)에 직접 접속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시청뉴스와 인천지역 정보, 생활 교양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과 재테크, 요리, 육아 등 50여개 강좌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문화센터도 개설됐다. 문화센터 강좌는 시 홈페이지 회원에 한해 수강신청 후 시청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나도 VJ,’ ‘디카로 본 세상’, ‘동호회’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인터넷방송국은 관공서와 지역 케이블방송국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인터넷방송국 형태로 기존 상용 인터넷 방송국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_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32





## 음식문화타운 조성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대규모 ‘음식문화타운’이 건립된다. 2010년까지 320억원을 들여 영종지구내 5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음식문화타운을 짓기로 했다. 이 타운에는 음식박물관, 음식체험관, 인천대표음식 판매식당, 관광상품 판매점, 위생교육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내년에 우리시 지정 음식업소와 시내 각 군·구를 대상으로 우리 음식을 대표할 업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을 위한 음식점 200곳을 발굴하고 향토 전통음식 30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 국제도시 공원에서 전통문화 즐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제2호 근린공원 내에 조선시대 궁궐 양식인 주심포방식의 전통 누각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 6월30일 전통누각의 기와 상량식을 가졌다. 송

도 2·4공구내 조성되고 있는 제2호 근린공원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담고 있는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 공원에는 미추홀바다, 누각, 열린마당, 전통문화관, 전통문화마당, 전통정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7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근린2호 공원은 송도에 거주하게 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시의회 소식

##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창규)는 지난 7월4일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식 및 경축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의 공감과 성원 속에 안정적으로 5대 의회가 출범하고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검소하고 내실있게 진행됐다. 박창규 의장을 비롯해 제5대 시의원과 안상수 시장, 나근형 교육감, 지역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행사를 가졌다. 박창규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5대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과 포부를 밝혔다.

## 주요사업 현장방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7일 인천대교 건설현장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청 갯벌타워,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 제2단계사업 현장 등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맞아 시의원 전원이 현장방문에 참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와 중앙

## 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협약은 양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분야를 공동 추진해 사업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및 화교자본 유치를 위한 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송도국제도시 내의 문화시설 확충, 2008년 개최 가능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적극적인 유치 등을 당면사업으로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 2009년 국제도시 엑스포 개최

우리시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모습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해외투자자 및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 국제도시 엑스포’를 2009년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행사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준비기획단과 조직위원회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 엑스포가 열리는 2009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준공될 인천대교와 아시아트레이드타워 등을 선보여 세계 각국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송도를 세계 최초의 U-City(유비쿼터스 도시)로 조성 중인 우리시는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엑스포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체와 대학교, 연구소 등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지역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편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소관 위원회별 업무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세밀한 업무 분석을 한 후 상임위원회별로 현지 시찰 등 시정현황파악이 이루어졌다.

## 축하화분, 불우이웃돕기에 전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6일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문교사회·산업·건설교통 등 각 상임위원장에게 온 축하화분 175개를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협의회 홍희자 회장에게 전달했다. 사전에 축하화분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나 축하화분이 지속적으로 배달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화분을 모두 매각해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_ 인천광역시의회 (440-6054)



# 2014년 도약 위한 힘찬 도움닫기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우리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2014인천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위원장 신용석)가 주축이 돼 각종 국제 스포츠대회와 ANOC(국가올림픽연합회)에 참가하는 등 아시아지역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체육기자연맹총회와 아시아 권역별 포럼에 참가해 유치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국내 아시안게임 유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이버 서포터즈를 구성해 운영하고 유치위원을 위한 슬로건 공모, 차량용 홍보스티커 제작, 유치활동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그밖에도 농협중앙회 인천본부와 10억원 기금을 목표로 유치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 기원 농어촌사랑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 덕분에 우리시는 경쟁국인 인도의 델리와 비교해 유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러 차례 치른 국제 스포츠 대회경험, 도시의 안전과 질서, 교통, 환경 등 각종 인프라에 있어 인도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렇게 우리시가 2014아시안게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유치에 성공했을 경우 노력 이상의 막대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견주어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상 더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6조3천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조7천4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17만2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게임 유치는 이러한 산술적인 부가가치 외에 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의 시너지 효과,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의 기능 활성화 등의 효과가 우리시에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또 대회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 뿐 아니라 국비지원과 민자유치를 통해 경기장 시설, 공원, 도로, 통신 기반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이다.

유치위원회는 오는 8월초 열리는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집행위원회에 참석해 회원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또 8월16일부터 24일까지 스리랑카에서 개최되는 남아시아대회에서 참가국 관계자들에게 인천의 발전상과 대회 개최의지를 부각시켜 홍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시는 유치 결정이 날 때까지 가속 페달만을 힘껏 밟을 것이다. 한편 OCA는 당초 오는 12월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기간 중 45개국 회원국들의 표결로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하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축제분위기가 아니라 후보 도시간의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결정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OCA는 오는 8월초 마카오에서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연기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기가 확정되면 쿠웨이트에 건설 중인 OCA본부가 준공될 2007년 8월경 개관식과 함께 개최도시가 확정된다. 경쟁도시인 인도 델리에 비해 유치준비기간이 짧았던 우리시에는 유치전략을 촘촘히 떠나가는데 오히려 유리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_ 2014인천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 (440-2014, www.incheon2014ag.org)

## 아시안게임유치 문제없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와 인천시체육회는 지난 7월12일 구월동 시티은행빌딩 대강당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활동 시민보고회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박창규 시의회의장과 인천체육회, 인천생활체육회 등 체육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연극협회의 ‘소원성취발원이요’라는 주제의 문화공연이 마련됐으며 지난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신경현(29·인천시청)선수과 2002아시안게임 보디빌딩 금메달리스트 강경원(33·인천시시설관리공단)선수가 대회 유치기원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유치위는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대회 유치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박원식 농협중앙회 인천지역 본부장 등 유공자 13명에게 인천시장 감사패를 전달했다.





# 미래형 명품도시로 변신한다

21세기 도시트렌드의 키워드는 ‘도시재생’. 기존 시가지를 정비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신자유주의 도시관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럽의 신도시들을 비롯해 가까운 일본 그리고 미국 등에서는 기존의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시는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가정오거리를 중심으로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미래형 입체도시 건설이다.

글·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가정오거리 재생 조감도

## 인천은 지금 리모델링 중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은 주거만을 위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다. 주택건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우리시와 시민, 그리고 산업, 금융, 교육, 정보업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낡은 도시경쟁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우리시의 발전 원동력이었던 내항을 중심으로 한 개의 거점과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두 개의 축을 설정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구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무질서한 도심을 정비하고 공동화를 방지하며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활기 넘치는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도시가 자생능력을 갖고 주변으로 성장 파급효과를 창출해 우리시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생사업을 목표로 우리시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 송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도화·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인천·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각국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관광전차 도입사업, 신평-월미문화의 거리간 상행보행길 조성사업 등 10개 재생사업을 펼치고 있다.



## 아름다운 도시, 가정(佳亭)

우리시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서인천IC 인근지역을 중심으로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가정오거리 최첨단 입체복합도시 건설이다. 가정오거리의 재생사업은 그 지역명에서 예견된 듯하다. 가정동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

## 제2의 상제리제 거리생긴다



서인천IC~도화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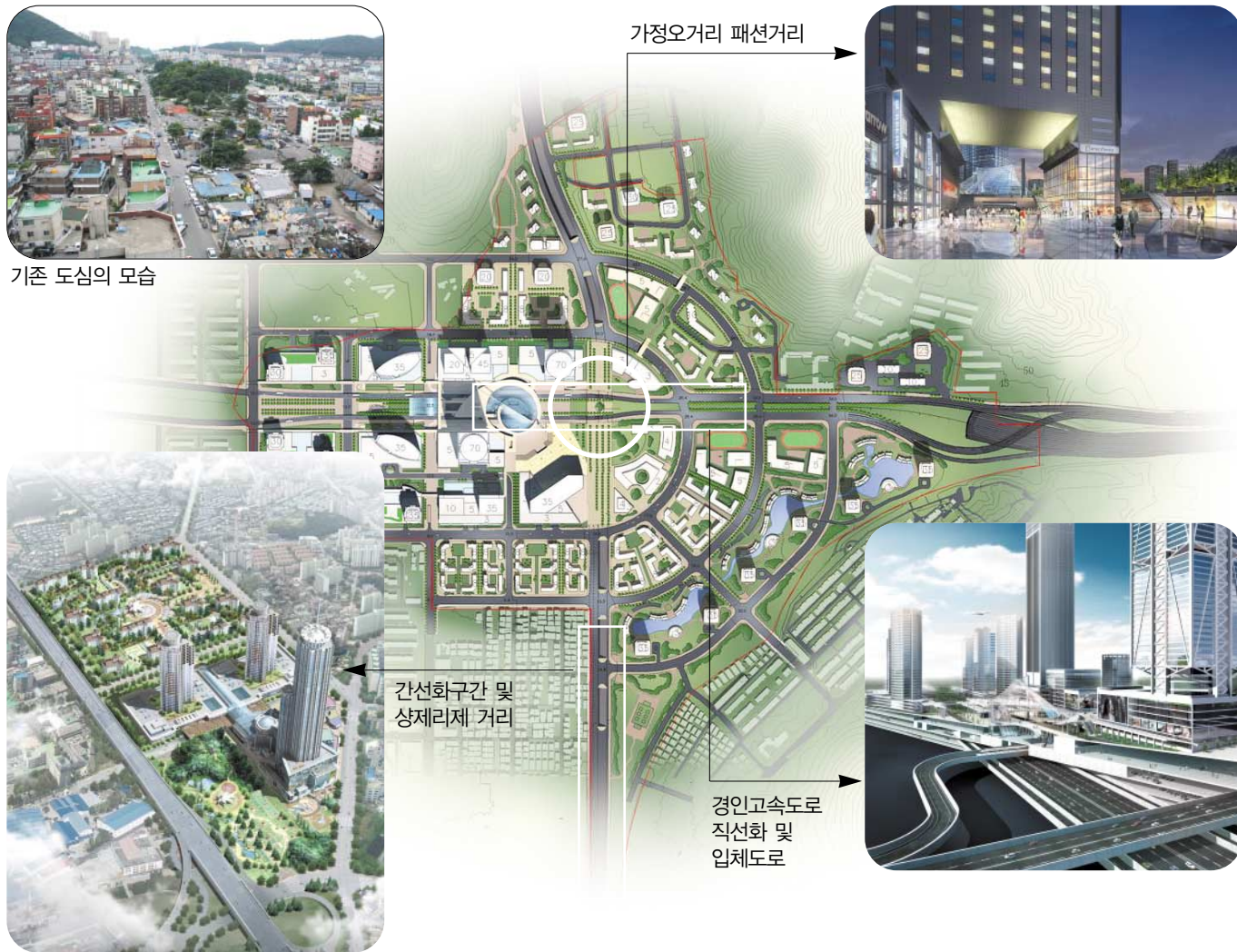


도화C~인천항기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가좌C주변 도시재생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에 연계된 후발사업이다. 1968년에 국내 최초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의 서인천C~인천항에 이르는 10.5km구간을 국도로 전환한다. 현재 왕복 6차선 도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 낙후된 주변지역을 역세권 중심의 주거·상업·녹지가 어우러진 도시로 새롭게 단장한다. 서인천C~도화C 구간의 남북측은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계한 역세권으로 개발하고 도심성장축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도화C에서 인천항 기점까지 경전철(LRT)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로주변은 도보로 패션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프랑스 상제리제 거리와 시민공원 거리로 꾸미고 녹색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 동안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된 두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2008년 착공해 2013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 ■가정오거리 주변 도시재생 조감도



(趙胖)이 별장으로 정자를 세웠는데 그 모양이 아름다워 가정(佳亭)이라 했고 그것이 훗날 마을 이름이 됐다고 전한다. 가정동에는 '개경주'라 불리던 마을 있었는데 바로 가정이 있던 터 '가정지(佳亭址)'의 발음이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가정오거리는 옛 명성을 되찾아 아름다운 정자가 아닌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서는 입체도시로 변신할 예정이다.

가정오거리는 프랑스 파리의 신도시 '라데팡스'와 일본 재개발 성공사례로 알려진 요코하마의 '미라토미라이21', 도쿄의 '시오도메'를 모델로 하고 있다. 라데팡스는 교통량과 통행인을 감안한 '걷는 길과 차길 분리'의 원칙을 최초로 실현한 도시이며 50년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이다. 일본의 항구도시 요코하마 미라토미라이21도 항만부지 55만평을 재개발해 성공했다. 특히 이 도시는 업무·상업·국제교류의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쓰비시그룹이 소유한 70층짜리 요코하마 빌딩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첫 철도역으로 변영했던 시오도메는 최근 재개발을 통해 초대형 빌딩 입체도시로 변모해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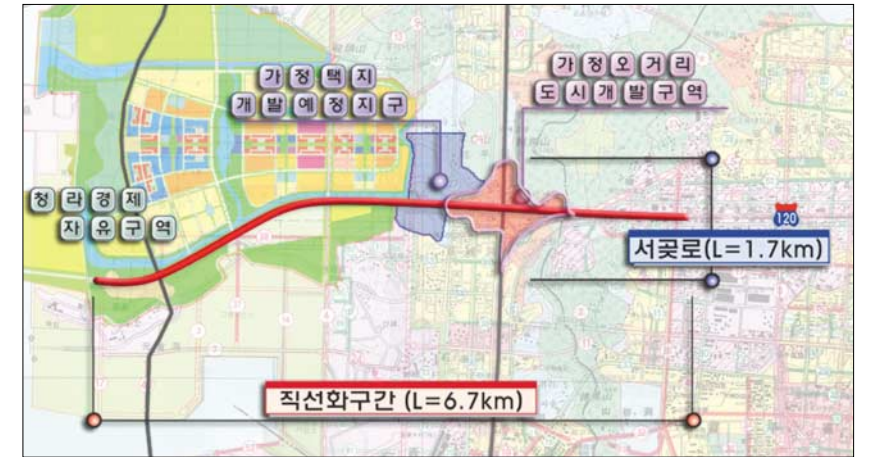
가정오거리는 이렇게 외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다층입체구조의 미래형도시로 건설될 계획이다. 지하에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나가고 버스와 개인 차량들이 오가며 지상에는 보행자들이 차량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활동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구체적으로 지하에는 경전철(LRT)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대중교통 체계가 도입되며 지상에는 77층의 쌍둥이 빌딩과 40층 이상의 대형 상가 및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영화제작 스튜디오와 방송국, 쇼핑몰, 어린이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입체 보행자데크를 통해 공중 보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개발계획으로 사업시행자인 우리시와 대한주택공사는 2013년까지 1조 5천여억원을 투입해 가정오거리 주변 약29만평(971,545㎡)에 입체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주거·상업·레저 기능의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총 1만200세대 2만7천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 경인고속도로가 짝~ 퍼진다

서구는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였다. 특히 가정오거리는 인근 공업단지와 김포, 수도권을 잇는 인천의 중심축에 위치하며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우리시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펴는 직선화 사업을 추진중인데 바로 서인천IC에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를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새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중점이 현재 인천항 기점에서 서구 원창동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서인천IC~청라IC구간은 왕복 8차선으로, 청라IC~원창IC 구간은 6차로로 건설된다. 7천7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가 직선화되면 무엇보다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최단 접근도로 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지구의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서인천IC와 가정오거리 주변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과 제2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등과 연결되면서 광역교통망이 구축돼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오해 두 가지

### 도시재생·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모두 같다?

우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도시내 노후, 불량화된 주택 및 지역을 정비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가장 큰 차이는 사업주체이다. 재개발사업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사업인 반면 재건축사업은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비도시계획사업이며 주민으로 구성되는 재건축 조합이 주체가 된다.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는 단순 주거기능을 재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미개발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만을 위한 수량열거식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과의 차이점은 소규모 구역단위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거점 및 축개발 중심사업이란 점이다. 도시재생은 주거 위주의 개발에서 상업, 업무, 문화, 주거 등 복합기능으로 개발된다.

### 재생사업은 모두 시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우리시가 추구하는 재생사업은 관 주도 도시개발이 아닌 민간참여 도시개발이다.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 재생사업은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오거리 재생사업의 경우 우리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가정오거리 주변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등 행정업무는 우리시에서 맡는 반면 개발사업의 예산과 집행은 주택공사에서 담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니 '돈 많이 드는 사업'이라는 걱정은 이제 '뚝'이다.



# 망가진 옷 누구 탓일까? '세탁 포청천' 이 판결한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부평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아이에게 입힐 니트원피스를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짠 후 전국 체인망을 갖춘 C세탁소에 맡겼다. 그런데 세탁을 하고나자 흰 실로 짠 부분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색이 바랬고, 원색에 가까웠던 단추들도 색깔이 변해 보기 싫게 됐다. 김씨는 인천소비자연맹에 세탁물심의를 의뢰했다.

심의위원들은 약품테스트 등을 거친 끝에 세탁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는 실값 5만원과 공임 10만원 등 16만 5천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탁소에서는 옷을 입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5만원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소비자연맹은 김씨와 세탁업소를 중재해 제품가의 50%에 달하는 8만5천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양쪽의 합의를 얻어내고 심의를 종결지었다.

이처럼 의류나 장신구 등을 세탁한 후에 제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한다.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일반인은 알 수가 없다. 이럴 때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세탁물심의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

## 세탁물 분쟁을 줄이려면?

지난해 접수된 3천831건의 분쟁을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60.8%(2,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자 30.5%(1,169건), 세탁업자 7.9%(301건)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분쟁을 줄이려면 소비자나 세탁업자 모두 의류에 표기된 취급표시대로 세탁을 해야 한다. 특히 세제의 선택이 중요하고 세탁시간을 지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접수할 때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파악한 후 접수하고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는 것 역시 소비자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세탁물심의를 의뢰하려면 직접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시지회(434-4123~5, 남동구 구월1동 아름빌딩 6층)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로 문의한 후 택배로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세탁물심의위원회는 화요일까지 접수된 세탁물에 대해 매주 수요일 심의를 열어 약품테스트, 기계테스트 등을 거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오전 7시부터 시작한 심의는 점심시간을 끝까지 넘겨 2~3시에 끝나기 일쑤다. 매주 처리하는 건수가 150건에서 많을 때는 200여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세탁물의 이상이 제조업자나 세탁업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규정에 따라 피해 배상을 받도록 하고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내용증명 발송을 대행해 주는 등 법적인 조치까지 돕는다.

심의위원장 박주남씨 외에 현순길, 김진식 위원이 인천시소비자연맹의 세탁물심의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세탁업중앙회의 임원을 맡고 있으며 각각 모피, 봉제, 원단 등 전문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들이라 소비자들은 위원회의 '판정'에 믿음을 가질 만 하다.

세탁물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세탁물만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선글라스, 벨트 같은 장신구에서부터 가방, 신발 등에 대해서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소파나 가구처럼 덩치가 큰 제품은 위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 심의를 하기도 한다.

박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웬만한 불만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이 제조사나 세탁업자 등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어야만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라며 세탁물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것을 권고했다. ☀

# 산동네 발품 파는 행복 전령사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던 7월 초, 청천1동 사무소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경숙씨(44·청천1동)를 따라가 만난 박모씨(36·여)는 언니처럼 챙겨주는 도씨가 마냥 고마운 모양이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지난 3월 10일. 우리시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양성교육 과정을 마친 도씨가 청천1동사무소에 배치를 받던 날이었다. 아침 구정신문에서 홍보문구를 본 박씨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박씨는 알코올중독에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는 남편과 별거하고 있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터였다.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박씨와 인연을 맺게 된 도씨는 여러 차례 박씨 가정을 찾았다. 상담원 도씨는 정신과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박씨의 남편을 전문병원에 입원시키고 박씨에게는 남편을 이해하고 원만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친절엄마처럼, 때론 언니처럼 조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인연을 맺은 후 박씨와 남편 이씨,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꾸준히 만나 상담해온 것이 벌써 18회에 이른다. 도경숙 씨처럼 우리시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22명.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어려운 가정을 돕고는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 때문에 박씨 가정처럼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가정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힘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복지사들의 업무를 나누어서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들이다.

우리시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인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은 지난 2004년 52명을 배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우리시 자체의 양성교육을 거친 후 동사무소에 배치돼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모부자가정 등 소외계층의 가정을 일일이 찾아다닌다. 각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하다보니 자연히 어느 가정에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하게 돼 시설입소라든지 장판·도배교체, 병원치료, 반찬지원 등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돼 주고 있다. 가정 폭력이나 알코올 중독 등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것 역시 그들의 몫이다. 이날 도씨는 청천동 꼭대기에 혼자 살고 있는 김모 할머니(72)도 찾았다. 폐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폐지를 주워 혼자 생활하고 있는 김할머니에게는 이틀이 멀다하고 찾아와 안마도 해주고 말동무도 돼주는 도씨가 피붙이보다 더 반갑다. 손을 꼭 잡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서러운 마음도 달래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아니지만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기도 하는걸 보면 이들의 존재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일주일에 세 번, 4시간 근무에 30만원이라는 보수를 받기는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다 보니 나가는 돈이 오히려 더 많으며 환하게 웃는 도경숙씨. 이들 상담원들 덕분에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물론 위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조금씩 줄어들 듯 하다. ☀



## '똑똑'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시는 올해 1월과 2월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신규 양성교육을 통해 신규 상담원을 배출해 일선 동사무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인천알콜센터 등에 배치했다. 이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미혼모, 가출, 성매매, 저소득모자가정, 취업 및 직업훈련, 이혼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이들과의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각 구청이나 해당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시는 내년에는 모든 일선기관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있을 일정 교육을 통해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714)



# 버스터미널의 아기자기한 이야기

우리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란 말이 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으로 일하다보니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옷깃을 스치게 된다. 출근을 하다보면 버스정류장에 길게 줄지어 있는 사람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버스에서 내려 어디론가 바쁘게 가는 사람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사무실로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어디로 떠나고 있으며 또 어떤 일로 인천에 도착하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우리 인천교통공사(버스터미널)는 부산, 대구, 광주 등 13개의 고속버스노선과 강릉, 청주, 포항, 군산 등 44개의 시외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이다. 요즘은 인터넷(www.ictr.or.kr)으로 버스 승차권 예약이 가능해져 휴가철이면 서너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습도 사라져 간다.

하루 10,000여 명이 넘게 이용하는 대합실을 바라보고 있다면, 가족끼리 연인끼리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만나게 된다. 여행은 언제나 마음 설레게 하고 추억을 만들어 주며, 추억은 사람을 그윽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여행의 경비, 규모, 호사스러움과 관계없이 여행 그 자체만으로도 말이다. 이러한 행복 여행의 출발지 중의 하나가 인천버스터미널이다.

우리 인천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에는 화려하게



글·김익오 (인천교통공사 사장)

포장된 선물상자나 멋진 여행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자기로 짠 보따리를 손에 든 어르신들도 있다. 이 어르신들에게는 웬지 눈길을 자주 보내게 된다. 저 속에 무슨 물건이 있고 어떤 사연이 들어 있을까? 눈길이 가는 이유는 아마도 어릴 적의 아련한 추억 때문일 것이다.

시골에서 성장하여 어릴 때 부모님 곁을 떠나 혼자서 도시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짐 보따리를 많이 들고 다녔고, 어머니 또한 많은 것이 들어 있는 무거운 보따리를 힘겹게 들고 오셨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의 보따리 속엔 항상 자식을 챙기고 사랑하는 끝없는 마음이 들어 있었다. 쉽게 구하고 살 수 있는 물건이라며 편잔을 주어도, 직접 기른 감자 몇 개, 오이 몇 개에서부터 고춧가루며 참기름병까지, 담을 수 있는한 모든 것을 챙겨 꾸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오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쁜 일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심정은 또 어떨까?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새삼느낀다.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시간의 흐름에 대하여’

歲月(세월)은 本長(본장)이나 而忙者自促(이망자자촉)하고 天地(천지)는 本寬(본관)이나 而鄙者自隘(이비자자애)하며 風花雪月(풍화설월)은 本閑而勞攘者自冗(본한이로양자자용)이라.

‘세월은 본래 길고 끝이 없는 것이지만 마음이 바쁜 사람들은 짧고 촉박하다고 말한다. 천지는 본래 넓으나 속된 사람들은 좁다고만 하며 바람, 꽃, 눈, 달은 본래 한가로운 것이지만 일에 바쁜 사람들은 조용히 느껴 보지도 않고 매양 번거롭다고만 한다.’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만 전진한다. 오늘 아침 그 시간에 놓치고만 버스를 다시는 탈수도, 만날 수도 없듯이 시간은 단 한 번이요, 마지막이기도 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왔다가 그대로 지나가버리기도 한다.

소중하게 맞이하고 보면 시간은 보람을 남겨놓고 부질없이 흘러보내고 만 시간은 우리에게 후회의 그늘만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가슴속에 새겨 볼 일이다.

(출전 : 「이야기 채근담(菜根譚)」, 손풍삼 역음)

요즘같이 시간과 세월의 빠름을 실감할 때가 없었다.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울리게 되었다.



## 불타는 여름은 조심하세요

무더운 여름, 아이들을 그냥 햇볕에 노출시켰더니 하나같이 검둥이가 되어서 돌아온거 있죠? 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십시오.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소녀석들처럼 된답니다.  
김옥봉 (남구 학익동)



## 지금은 명상중

씻, 조용하... 곁은 정말 진지한데 뭘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지요? 게임생각? 맛있는거 먹을 생각? 본인들은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글썄요?  
선찬영 (부평구 삼산동)

## 메롱~~~~

아주 귀여운 꼬마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 꼬마는 우유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우유를 먹던 어느날, 엄마가 카메라를 가져다 대보니 메롱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어리던 아이가 벌써 스무살이 되었답니다.  
오영미 (남구 학익동)



## 앗, 엉덩이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한 손엔 아이스바를 든 은영이의 엉덩이가 장난감통에 끼었어요. 그것을 보고 문진아도, 치호도 가족 모두가 한바탕 웃었네요. 아이들의 느닷없는 행동에 우리가족 웃음 한보따리.  
권명숙 (남구 관교동)



## 물 만난 생쥐들

작년 여름 월미도 분수대에서 사촌동생과 오빠랍니다. 귀여운 양배추인형 엉덩이같죠? 얼마나 아이들이 부러우지 어른들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민오 (남구 송의 4동)



## 발가락의 수난시대

지난달 신랑과 함께 백령도 공동해안에 다녀왔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신랑은 무좀에 걸려 제 발가락 사이마다 햇볕에 달궈진 돌을 끼웠어요. 여러 분도 공동해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김주란 (경기도 부천시)



## 월드컵의 잔재

“대~한민국~” 월드컵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합니다. 16강 탈락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아이의 ‘머리’까지 바쳐서(?) 열렬히 응원한 우리 모두 후회는 없습니다.  
김미경 (연수구 동춘동)



## 갯벌센터에

저어새 보러 오세요~

강화도에 이런 훌륭한 곳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굿모닝인천〉 소개로 강화도 갯벌센터를 찾았답니다. 망원경으로 갯벌을 관찰할 수도 있고 갯벌과 관련된 동식물들을 잘 전시해 놓아서 모처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갯벌센터의 주인공은 저어새같습니다. 저어새가 바로 머리위에서 날아가는듯한 모습에 정말 실감나고 황홀했습니다.  
이혜연 (동구 만석동)

## 우리는 한통속

아기때부터 친구인 성준이와 윤철. 그야말로 고추친구죠. 장난끼와 천진난만함으로 뽄뽄 뽄친 두친구. 지난 여름 더위를 식히느라 옥조에서 찰칵. 귀엽죠?  
안성준 (계양구 용종동)

##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 인천항 갑문

# “우와~ 산만한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지난 1883년 일본에 의해 강제 개항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물포라는 작은 어촌마을에 지나지 않았던 인천. 1911년부터 1923년까지 일본이 인천항 축조공사를 벌여 항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당시 인천항 축조공사에는 인천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죄수들이 동원됐는데 백범 김구 선생도 노역에 강제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74년 현재의 인천항 갑문시설이 완공되면서 인천항은 비로소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기 지 역할을 하게 된다. 최고 10m에 이르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한 갑문시설은 인간의 도전정신이 이뤄낸 쾌거로 평가된다. 아시아의 갑문항은 인천항이 유일하다.

인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인 갑문식 항구를 보기위해 박문초등학교 6학년 오승우, 최영진, 이연주, 박선홍, 송승록, 양지혜 여섯 친구들이 월미도를 찾았다.

글 • 한정민 (전 더클래스 기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 ‘동남아는 좁다’ 쑥쑥 크는 인천항

갑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천항에 대해 알아야 한다. 월미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인천항 홍보관에서 멀티비전을 통해 인천항 공부가 시작됐다. 20여분 정도 집중하니 21세기 동북아시아대를 이끌어갈 인천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인천항은 갑문을 기준으로 내항과 외항으로 구분된다. 내항은 최대 10m에 달하는 조수간만의 차에도 불구하고 5만t 급에 이르는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해 외국화물 전용부두로 활용되고 있다. 모두 8개의 부두로 이뤄져 있으며 2003년 내항 전구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갑문 밖의 항구를 일컫는 외항은 위치와 기능에 따라 남항, 북항, 연안부두, 석탄부두, 국제여객부두로 나뉜다. 남항과 북항, 석탄부두는 내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유류, 액화가스, 석탄, 모래 등을 취급한다. 연안부두는 인천 앞바다 섬



들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접안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여객부두는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들이 이용하는데 가끔 외국 유람선이 들르기도 한다.

북항과 남항은 현재 시설 확충 공사가 한창이고, 송도국제





도시에는 송도신항이 새로 건설되고 있다. 인천이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연안부두랑 화물부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천항이 정말 많네요. 인천항을 통해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연결되고 있 다니...”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을 짓던 친구들은 미래 해양대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인천에 살고 있다는 게 새삼 뿌듯한 모양이다.

## 하루 가족나들이 공간으로도 ‘그만’

갑문으로 향하는 월미도에 들어서자 친구들의 입이 ‘쩍’ 벌어진다. 월미산과 소월미도 사이에 위치해 풍광이 아름다운데다 해송과 은행나무, 초록빛 잔디를 보니 절로 감탄사가 나오는 모양이다.

마치 동화 속의 예쁜 정원을 보는 듯하다. 공부하느라 심신이 지친 아이들은 폭신한 잔디밭에서 하루 종일 뒹굴고 싶어 하는 눈치다. 반나절 가족나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제격이다.

“여기서 결혼식도 해요?” 승우의 질문은 ‘야외결혼식장’이란 뜻말 때문이다.

안내를 맡은 갑문홍보관의 강미영 주임은 “이색 결혼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서류만 내면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푸른 잔디 위 째쭉름한 바닷내음과 시원한 바람 속에서 치르는 결혼식. 아이들은

벌써 그런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지 입가에 얹은 미소가 번진다.

갑문은 5만t급 선박이 드나드는 큰 갑문과 1만t급 배가 오가는 작은 갑문 등 두 종류다. 큰 갑문은 수로 너비가 36m, 작은 갑문은 22.5m다. 큰 갑문은 길이가 38m나 되고 높이는 18.5m, 두께는 8.3m나 되니 8층 빌딩만한 크기다. 이런 갑문이 모두 여덟 개. 당초 큰 갑문은 2만t급 선박에 맞춰 만들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을 돌아보던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큰 갑문의 크기가 5만t급 선박에 맞게 커졌다.

## 커다란 철문이 옆으로 ‘스르르’

강 주임이 선박 입항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도중 마침 중국 선박 한 척이 도크(갑문과 갑문 사이의 수로)로 진입한다. 운이 좋다. 인천항에 입항하는 대형 선박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

육중한 갑문이 바닷물을 가르며 스스로 열리자 영진이 지혜 승록이 연주 승우 선홍이의 입도 덩달아 벌어진다.

갑문 밑에는 바퀴가 달려있어 유압식 모터의 힘으로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인다고. 5분 가량 지나 갑문이 다 열리자 조그만 예인선이 먼저 들어온다. 보통 외국의 항구에 입



항하는 선박들은 그 항구의 바닷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외항에서부터 예인선의 안내를 받는다. 예인선은 바다에서 큰 배의 교통안내를 하는 셈이다.

중국의 대형선박이 수로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침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다. 수로의 너비와 선박의 너비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수로 벽면과 중국 선박 사이의 공간이 불과 서너 뼘 남짓에 불과해 보인다. 조금만 틀어져도 선박이 수로의 콘크리트 벽에 부딪힐 것 같다.

수로 안에 배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완전히 들어오자 열렸던 철문이 닫히고, 수로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15분쯤 지났을까? 이번엔 반대쪽 철문이 열린다. 도크에서 기다리던 선박이 드디어 내항으로 들어간다. 갑문을 통과하기까지 40분가량 걸렸지만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다.

“우와, 이렇게 큰 배를 가까이서 보기는 참이에요.

근데 배가 이렇게 갑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건 더 신기해요!”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만들다니 멋져요.” 영진이 지혜 승록이 연주 승우 선홍

우리 인천에 이렇게 멋진 항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시 인천에 사는 사람이라면 국제시민처럼 행동해야 할 터. 아이들은 이제 갓 인천항에 들어온 중국선박 위의 중국인들을 향해 반갑

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넨다. 뜻밖의 환영단을 만난 중국인들도 힘차게 손을 흔들어 화답한다.

## 배를 가뒤편 두는 독

‘세계적으로 밀물과 썰물 때의 바닷물 높이 차이가 크기로 유명한 인천 앞바다. 밀물 때라면 선박이 항구에 정박할 수 있지만 수면이 10m나 낮아지는 썰물 때라면 선박은 움푹달 싹할 수 없다. 그래서 독을 쌓아 바닷물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내항을 만든 것이다. 현재 인천항 내항의 깊이는 8~10m 정도다. 그리고 독에는 수로를 뚫어 배가 드나들 수 있게 하고, 수로 양끝에는 미닫이문을 설치해 썰물 때도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으니 바로 이게 갑문이구나...’

갑문이 대충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문이 열리고, 큰 선박이 입항한 뒤 다시 갑문이 닫히는 등의 과정을 직접 보고 난 아이들은 현장에서 배운 생생한 지식으로 머리 속을 가득 충전했다.

하지만 뛰어놀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건 역시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조른다. “월미도 놀이기구들이 바로 조~기 있는데... 여기까지 온 김에 월미도도 들렀다 가요. 네?” ☀

**견학안내** 1974년 완공 이래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 분류, 군인들이 경계 근무까지 섰던 갑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해 지금은 견학을 원하는 개인, 단체 누구나 돌아볼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 인천항만공사가 출범한 이후 갑문을 교육·관광코스로 개발하려는 노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견학 신청은 인천항만공사 갑문운영처 운영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피해야 한다. 교통편은 전철 인천역에서 내려 15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바로 갑문운영처 앞에서 내릴 수 있다. (문의 \_ 770-4533)

## 버스타고 둘러보는 ‘인천항 갑문’

인천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해서 갑문을 둘러보는 방법도 있다. 인천의 도심과 관광의 정수를 모아서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운행되는 시내 순환 관광버스다.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비록 승객이 한 명뿐이어도 운행을 거르지 않는다. 인천을 찾는 외국인들이 ‘일목요연’하게 인천을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시티투어버스의 출발지는 주안역과 인천역. 순환버스인 만큼 중착역이자 출발지이기도 한 두 곳에서 동시에 출발한다. 코스는 인천역(약막 버스 승강장)→월미도(놀이기구 뒤편)→인천항(갑문)→연안부두(화센터 승강장)→송도 유원지(인천상륙작전기념관)→아암도 송도신도시 전망대→신연수역→인천대공원→시청역→주안역을 순환한다.

문의 \_ 773-8885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싶지 않을것을~ ㅋㅋ





인천 음식 요리조리 | 화평동 냉면

# 서민의 땀 씻어주는 세숫대야 냉면

글 • 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 냉면계의 마이너리티

한여름의 대표음식인 ‘냉면’ 하면 가장 먼저 함흥냉면이나 평양냉면이 생각날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인천의 동구와 중구 일대 공장과 부둣가 근로자였다면 단연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을 떠올릴 것이다. 함흥냉면이나 평양냉면은 모두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지만 세숫대야 냉면은 동구 화평동에 족보를 둔 바로 우리시 향토 음식이다. 아니 전국 방방곡곡에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이란 이름을 내건 체인점까지 생기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냉면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당시 동구 화수시장에는 3개의 식당이 있었고 인근의 대성목재, 동일방직, 해운노조 등 공장과 부둣가 일꾼들이 이곳에 모여 식사를 했단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주린 배를 가장 저렴하게 채워주기 위해 식당주인은 넉넉한 양의 냉

면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냉면이 그 이름도 엽기적인 세숫대야 냉면. 양에 있어서도 배를 채우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시원한 국물과 얼큰하고 매콤한 양념 맛으로 노동에 지친 스트레스를 한번에 날려버렸다. 게다가 당시 300원이라는 냉면 가격도 너무 착하고 서민적이었다. 이때부터 세숫대야 냉면은 사랑을 받기 시작해 전성기에는 화평동에 냉면집이 28개까지 늘어났고 1997년 특색음식거리인 화평동 냉면거리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냉면계의 마이너리티였던 세숫대야 냉면은 인천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 냉면 드시고 부자되세요~

누가 ‘메뚜기도 한철’이라 했던가. 냉면을 여름철 음식으로만 생각했다면 그 편견을 보기 좋게 깨주는 곳이 바로 화평

동 냉면거리다. 추운겨울에도 이 맛에 중독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찾아온다. 그뿐인가 사장님도, 종업원도 음주한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들러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이집 저집 원조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세숫대야 냉면을 처음 개발한 진짜 원조는 어디일까? 1979년 문을 연 ‘삼미 소문난 냉면’집이 그 원류다. 김중훈(사장 63), 김현금(57)씨 부부는 초창기에 근로자들이 두 세 그릇씩 추가로 주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냉면그릇을 세숫대야 크기로 특수 주문제작하기 시작했다.

이 냉면집에 들어서면 문 위로 ‘오신 손님 모두 부자되세요.’라는 문구의 현판이 걸려있다. 저렴하게, 그리고 배불리 드시고 남은 돈은 저축해 부자되라는 김 사장의 배려가 그대로 묻어난다. 27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김 사장은 예전 한창 때는 하루에 2200그릇까지 팔아본 적이 있다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동인천 역세권의 상권이 쇠락하고 경인선 복복선 공사로 냉면거리의 반쪽이 잘려나가면서 최근에는 냉면집이 13개 정도로 부쩍 줄었다. 그래도 화평동에서는 3500원 15년전 가격 그대로 맛나고 양 많은 냉면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사리추가는 공짜다.

## 국물이 ... 끝내줘요~

오늘 일일주부로 참여한 이화미(부평, 36)씨는 외모에서부터 무언가 배우고 싶은 열정이 넘치는 활력있는 주부같지 않은 주부다. 오랫동안 동화구연가와 색동극단에서 활동한 탓인지 선명하고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어오자 김

현금 씨도 대답을 피할 길이 없는 듯하다. “집에서 냉면 만들려면 사실 많이 번거로워요. 한번은 큰 맘 먹고 오랫동안 육수를 끓였는데 맛이 안나더라고요. 육수는 어떻게 끓여야 맛이 날까요?” 김씨는 무언가 들킨 듯 조금 놀라며 친절하게 알려준다. “그게 우리집 맛의 비결인데 들려버렸네. 생강, 고추씨, 무, 마늘, 오이 등 각종 야채를 끓이는데 육수량 별도로 끓여요. 그래야 각각의 향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집 육수는 오리를 사용해요. 광우병 때문에 사골이 인기가 없어져서 오리를 사용하는데 닭보다 훨씬 담백하고 개운한 맛이 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육수도 중요하지만 무김치와 열무김치 맛이 냉면 맛을 더 좌우하지요.” 오늘 수업은 끝인데 이화미 주부는 열무김치 담그는 법도 배워야 할 참이다. ☀



| 화평동 냉면거리 |



여러분도 일일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부는 <굿모닝인천> 편집실 (440-2072)로 연락 주세요.

## 화평동 냉면 만들기



### 〈물냉면 육수만들기〉

- ① 양파, 마늘, 대추, 무, 대파, 오이, 생강, 고추씨 등 각종 야채를 3시간 이상 끓이고 소 양지머리(또는 닭, 오리)를 따로 6시간 이상 끓여낸다.
- ② 센불에서 고기를 넣고 끓이다가 다시 끓기 시작하면 중간불로 놓고 끓인다. 고기를 끓이는 동안 거품을 걷어내고 다 고아 내면 식혀서 기름을 걷는다.
- ③ 육수를 끓이는 도중에 찬물을 보충하면 누린내가 나고 맛이 없어지므로 주의한다.

### 〈비빔냉면 양념장만들기〉

- ① 고춧가루, 고추장, 물엿, 설탕, 다진 마늘, 다진 양파, 식초, 간장, 깨소금 등을 넣는다.
- ② 비빔냉면의 양념장을 만들 때 물대신 식초를 사용하며 만든 양념을 3일정도 숙성시킨다.  
※공통 : 초절임 무, 잘 익은 열무김치, 깨소금, 참기름

### 〈알아두기〉

- ① 냉면을 먹을 때 계란을 먼저 먹는 것이 순서이다. 더운 여름 사람의 뱃속에 찬기운이 돌아 찬 음식인 냉면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을 먼저 먹어야 한다.
- ② 메밀과 감자전분 등으로 만든 냉면은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이다. 특히 메밀에는 다른 곡물과 달리 불용성 섬유소가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
- ③ 면은 잘라 먹지 않는 게 원칙이다. 가위의 날이 달으면 면의 생명을 잃어 맛이 없어진다고 한다.
- ④ 식초는 거자의 향을 살려주고 대장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



## 수프(Soup)와 빵(Bread)

# 수프는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수프는 진한 수프인 포타주(Potage)와 맑은 수프인 콘소메(Consomme)가 있다. 걸쭉한 수프 포타주는 감자, 옥수수 등 채소가 첨가된 담백한 요리에 어울리며 쇠고기, 생선, 닭고기 등을 푹 삶은 국물로 만든 수프 콘소메는 진한 맛의 메뉴가 어울리며 코스가 많은 정찬요리에 적합하다.

뜨거운 수프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선 스푼으로 조금 떠서 맛을 본 후, 스푼을 이용해 저어 식히도록 한다. 입으로 후후 불어가며 식혀 먹는 것은 좋지 않으며 차를 마시듯 소리를 내어 먹는 것도 옳지 않다. 아울러 스푼으로 뜬 수프를 한 입에 먹지 않고 스푼 위에서 나눠먹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스푼이 입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순전히 한국식 국물을 먹는 것이므로 주의한다.

수프를 들 때는 안에서 바깥으로든 또는 바깥에서 안으로든 상관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하면 된다. 손잡이가 달려 있는 그릇에 담긴 수프는 손으로 그릇을 들고 마셔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빵 중에서 토스트나 크로와상 등은 아침식사용이므로 정찬시에는 주문하지 않는다. 빵은 처음에 테이블에 놓여 있더라도 처음부터 먹거나 수프와 함께 먹는 것이 아니다. 빵은 요리와 함께 시작해서 디저트를 들기 전에 끝내면 된다. 자신의 빵 접시는 왼쪽에 놓인 것이므로 오른쪽의 빵 접시에 있는 것을 집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

정찬(점심이나 저녁)에는 잼을 사용하지 않고 버터만을 사용한다. 버터를 전체에 발라 먹지 말고 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빵을 잘라 놓고 버터를 바른다. 빵을 밀크나 커피에 적셔 먹지는 않지만 고기국물이나 소스의 경우에는 빵을 적셔서 먹기도 한다. 접시 바닥에 남아 있는 수프를 빵으로 닦아먹는 것은 상관없다. 빵을 먹을 때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료제공 \_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762-5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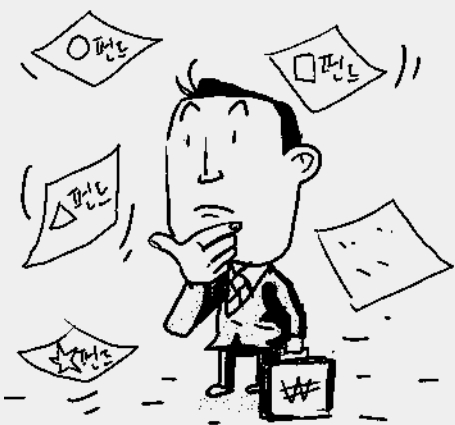
## 트림과 재채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채기에 대해 상당한 유통성을 보인다. 이에 비해 서양인들은 코풀기에 대해 너그러운 입장을 취한다. 코 풀기에 대해 관대하다고 해서 서양인들이 식탁이라든지 혹은 공공장소에서 무시로 코를 탕탕 풀어댄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서양인들도 싫어하기는 매 한가지다. 코를 계속 훌쩍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푸는 게 낫다고 생각할 따름이다. 코를 풀 땐 그저 손수건으로 닦아내는 정도로 한다. 무엇보다 레스토랑에서 냅킨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입을 닦는 모습을 보면 서양인들은 대경실색한다.



# 수많은 종류의 펀드들... 나와 관련된 펀드는?

글·김전욱 차장 (HSBC은행 인천지점 PB 454-7013)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도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갖가지 종류의 펀드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각종 금융기관을 갈 때마다 새롭게 출시되어 안내되는 각종 펀드들은 그 종류와 내용들의 방대함만으로도 투자자들의 머리 속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다. 심지어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펀드상품들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니 정말 저금리시대의 대안이라고 하는 펀드상품의 홍수시대라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펀드와 간접투자상품이 나오고 있는 요즘 실제로 돈을 맡기는 투자자 중 가입하고 있는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자산관리업무를 하며 많은 종류의 펀드 및 간접투자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필자의 경우도 모든 고객에게 판매자의 알릴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 시점 또는 중간 중간 가입한 상품에 대해 되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 펀드는 자동차나 휴대폰과 같아

지난 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투자자의 다수가 '펀드=(국내)주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과 같은 주가 조정기에는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펀드 수익률이 얼마나 하락했는가를 묻는 전화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주가가 연일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수익이 나고 있는, 그것도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 상품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상품이 시장에는 적지 않다는 것과 그러한 상품에 자신의 자금이 투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투자자 역시 많지 않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실제로 주식형펀드와는 달리 채권형펀드의 경우 최근의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연수익률이 10%에 달하고 있는 상품도 많은 상황이다.

필자는 고객과의 상담시 펀드를 흔히 자동차나 휴대폰과 같다고 설명을 하곤 한다. 자동차와 휴대폰이 끊임없이 성능과 디자인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듯이 펀드 또한 그 투자대상과 성격을 업그레이드하며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예전과 같이 단순히 주식에만 투자하는 전통적인 성격의 펀드상품은 이젠 펀드계의 골

동품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물론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주식형펀드에 가입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펀드상품 중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리고 투자해야 하는 펀드는 어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투자시에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투자를 결정해야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가는 것이 피같은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의무가 아닐까 싶다.

먼저 기본적인 펀드의 구조를 살펴보면 펀드상품은 투자되는 자산의 비율에 따라 크게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산의 운용방법에 의해서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크게 액티브형과 인덱스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액티브형의 경우 투자되는 시장의 (예를 들어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KOSPI 200 등)평균 수익률 이상을 얻는데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형태로서 펀드에 편입되는 종목 자체가 안정성이 높은 대형우량주나 가치주 보다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성장주 위주로 편입이 되므로 예상수익은 높아지지만 리스크 또한 증가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인덱스형의 경우 투자되는 시장의 평균수익률과 거의 일치하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형태로서 편입자산이 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대형우량주 및 지수대표주 등에 투자됨으로써 기대수익은 액티브형에 비해 작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투자할 펀드에 대해 철저히 알아야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의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펀드상품이 있다. 채권형펀드 뿐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곳곳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배당주식형 등의 혼합형펀드들이 바로 그들이다.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펀드 상품이 나와 있고 또한 매일매일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투자환경에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대수익,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상품을 고르는 것이 향후 최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최적의 상품을 고르려면 금융기관의 전문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이전에 자신이 투자할 펀드에 대해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이 투자자의 의무이자 기본임을 말하고 싶다.☀





## 연개소문의 고향은 강화도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 피부는 시원하게 속은 따뜻하게

글 • 이무일 원장 (인천시 한의사회 홍보이사, 고운물한의원 원장 891-0288)

여름철 건강관리의 기본 원칙은 피부는 시원하게, 속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액온도는 우물물과 같다고 보는 것이 한의학적 견해입니다. 여름에는 우물물이 외부 온도보다 더 낮게 형성됩니다. 우물물로 목욕을 해본 경험이 있는 어른들은 아마도 그 시원하다 못해 차디찬 맛을 이글만 읽으셔도 떠오르실겁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우물물이 외기보다 더 따뜻하죠.

체표의 온도는 상승하지만 실제 몸 내부 온도가 낮아지는 여름철에는 차가운 물이나 빙과류보다는 삼계탕이나 보양탕을 먹는 것이 더 좋은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어도 땀을 잘 흘리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속이 차갑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은 삼계탕이나 인삼차 같은 것을 자주 드시면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냉방이 잘되는 곳에 오래 머물러 나타나는 냉방병 증상에는 향유(香薷)라는 약재로 차를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유 5그램을 2리터 정도의 물을 붓고 20분정도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향유는 더위와 습기를 제거해 줄 뿐 아니라 이뇨효과도 커서 배뇨 장애에도 도움이 되며 찬 것을 먹고 탈이 난 경우에도 좋습니다.

그럼 냉면이나 찬 것은 절대 먹으면 안되느냐? 그건 아니죠. 체표쪽의 열이나 상부의 열을 밖으로 발산시켜주는 음식은 또한 먹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적으로 여름을 특히 더 많이 타는 분들에게 메밀국수나 참냉면 등은 최고의 여름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메밀은 위장의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여름이 아니라 평소에도 얼굴쪽이나 상부에서 땀이 줄줄 나고 얼굴이 붉은 분들은 자주 드시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그러나 위장장애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조금 삼가야겠죠. 찜은 평소 근육이 탄탄하고 얼굴이 검은 분들이나 살이 찐 분들은 자주 드시면 냉방병으로 인해 근육이 빠진 느낌을 해소해주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약이자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은 열과 함께 습기도 많은 계절입니다. 열과 습기는 모두 우리 몸의 기운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1년 중 가장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습기로 인해 우리 몸이 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는 울무가 효과적입니다. 볶은 울무를 곱게 갈아서 하루 1~2회 1큰술 분량으로 복용하면 살이 찌서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물론 체중감량에도 도움이 되죠. 얼음물을 아무리 마셔도 더위와 갈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생맥산(生脈散)이라는 처방도 효과적입니다. 맥문동(麥門冬) 8g, 인삼 4g, 오미자 4g을 차로 달인 것인데 맛과 향기가 좋아 꿀을 넣고 차게 해 음료수로 마셔도 됩니다. 기운을 돋우며 갈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커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생맥산에 들어가는 약재 중에 있는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약재인데 각각의 맛 중 신맛이 강합니다. 신맛을 내는 성분은 땀을 조절하며 더위를 식혀주는 효능과 사고력, 주의력도 향상시켜 줍니다. 잘 씻은 오미자의 물기를 빼고 찬물에 10시간 정도 담가 우려내어 꿀을 약간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제호탕이라고 하는 여름 처방이 있는데 태운 매실(烏梅)에 백단향, 사인, 초과를 가루로 만들어 꿀에 섞어 중탕을 해 놓았다가 냉수에 타서 마시는 전통 한방차입니다. 전신을 상쾌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 주며 더위로 인한

갈증과 식욕 저하를 해결해줘 수험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의 여름철 음료로 좋습니다.

제호탕의 원료 중 하나인 매실은 여름철 가정 상비약으로 꼭 권해드리고 싶은 약재입니다. 여름철 물을 갈아먹고 생기는 복통이나 설사, 장염의 초기증상에는 매실차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정성을 조금 더 들이실 분들은 매실을 말려 겉게 볶은 것[오매(烏梅)]을 달여드시면 복통, 설사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동의보감에는 여름철에 땀 흘리기를 게을리하면 가을과 겨울에 큰 병이 온다고 전합니다. 에어컨과 빙과류를 즐기며 편안하게 여름을 보내는 맛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햇볕이 따갑지 않은 이른 아침에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 등 좋아하는 운동으로 땀 흘리기에 열중해보는 것도 좋은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일 것입니다.☀



# 주권을 표현하세요

글 • 정찬호 (광성고등학교 2·제6기 청소년웹진 MOO 청소년기자)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인천지역 워크숍이 인천지역의 청소년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대통령과 청소년들의 만남을 통해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의 건의를 적극 수용 및 해결함으로써 청소년을 경쟁력 있고 진취적인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게 된 회의이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특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인천 지역회의로 50명의 청소년위원 중 30명이 참가했다.

문학유스센터에 모여 회의 장소인 강화 수련원으로 이동했다. 숙소에도 착했는데 강화에 이런 수련원이 있나 심을 정도로 깨끗하고 시설이 아주 좋았다. 숙소나 생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바로 첫 활동에 들어갔다. 노는 토요일에 회의하러 와서 슬픈데 거기에 첫 활동이 '의제란?' 주제의 강의여서 더욱 우울해졌다. 김영수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의 초청 강연이 대략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청소년 특별회의에 의제란 말은 매우 중요했고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개념과 회의 활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큰 영감을 주었다.

강연이 끝나고 회의에 참석한 30명의 청소년 위원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고리타분한 '전 어디서 무얼 하는 누구누구입니다'가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빙고와 자기소개를 합쳤다고 할까? 회의에 앞서 상대방을 알 필요가 있었고 자기소개 시간 중 많은 얼굴들을 익혔다. 소개가 끝난 후 21C 청소년 운동이라는 강연이 이어졌다. 학교 밖에서까지 강의를 들을 줄이야... 회의에 참석한 친구들과 또다시 우울해졌지만 앞에 강의처럼 충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있는 강의였다. 강의가 끝나고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대머리에게 삼푸를 판다'라는 주제로 홍보 문구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활동은 우리들의 다양한 사고를 요구했다.

저녁을 먹고 분과별 의제선정 토론에 앞서 레크리에이션을 했는데 여느 웃고 즐기는 레크리에이션이 아닌 '관계'라는 중심적인 내용의 특별한 활동이었다. 레크리에이션이 끝나고 본격적인 분과별 의제선정 및 토론에 들어갔다. 지역회의의 분과는 크게 1.국가정책 의제 2.청소년 실천의제 3.인천지역 고유의제로 나뉘어 의제선정 활동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차츰 열이 올라 1시간 반 가량으로 예정되었던 회의 시간은 담당 지도자선생님들께 시간을 더 요구하는 등 11시까지 이어졌고 점호가 끝난 후에도 계속돼 모두들 새벽 3~4시까지 밤샘을 하였다. 토의 내용이나 진행은 청소년답게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그 열의와 진지함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어른들 못지않게 대단했다.

마지막 활동인 결과 발표를 했다. 어제의 결실을 맺으려는 듯 각 분과의 발표자들이 나와서 열심히 토론한 의제들을 이야기했다. 발표가 끝나고 다른 분과는 해당분과의 의제에 대한 궁금증이나 건의 사항을 말하였고 각 분과는 그에 따른 응답이나 의견에 대한 수렴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마지막 활동이 끝나고 지도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던 후 뒷정리와 함께 1박 2일의 여정을 끝냈다. 첫날 지도자 선생님이 "여기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주체인 곳입니다. 학교 생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들의 의견을, 주권을 마음대로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모임입니다."라는 말을 잊을 수 없었다. 실로 그랬다 1박2일 다른 청소년 활동과 비교해 보아도 청소년 위원들은 누구보다 자율적이었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으며 어른들의 호통과 통제에 맡겨지지 않았다. 또한 그만큼의 책임을 다했다. 청소년 위원들은 8월에 있을 포럼 준비를 위해 다시 모일 것이다.☀







언뜻 드라이저(T. Dreiser)의 작품 『아메리카의 비극』을 떠올린 것은 그에게서, 이를테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무슨 그런 ‘비극’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는 이미 나이 마흔을 넘겼고, 시립극단의 배우가 되어 있으니 소설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될 리는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 소설의 내용을 떠올렸다고보다는 그것을 각색해 만든 영화 ‘젊은이의 양지(A place in the Sun)’의 주인공 모습을 생각해 냈다는 것이 옳은 이야기이다.

굳이 더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처음, 극단 연습실로 가기 위해 침침한 복도를 꼬부라져 내려갈 때, 그의 강한 눈빛과 진한 눈썹이 흡사 영화의 주인공 몽고메리 클리프트의 모습을 닮아 있었던 것이다. 그 미국 배우의 깊이를 모를 만큼 맑은 우울과 우수와 가지런한 고독과 섞여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냉소의 그늘.... 찰나였지만 그에게서 몬티의 그런 음영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음을 말한다. 잘생긴 얼굴이었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의 반항아적인 인상이 더욱 강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차광영(車光榮) 씨. 이 연극배우를 마주하고 앉아서 뜻밖에도 우기(雨期), 닥쳐올 비의 계절을 잠시 생각한 것도 그래서였는지 모른다. 포도(鋪道) 위로 쏟아지는 사선(斜線)의 빗줄기, 그 비트(Beat) 선을 속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채 걷는 사내! 그리고 불그스름한 백열등 아래, 파마를 해서 곱슬거리는 머리 뒤쪽에 흐릿하게 매달려 있는 여름 꽃, 약한 시력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그 꽃을 제멋대로 ‘아프리카’라고 이름붙이고, 영화배우 최민수를 떠올리다가 미국 배우 워런 비티나 말론 브란도를 그려보게도 된 것도 필경 차광영이라는 사내가 풍기는 어떤 독특한 냄새 때문일 것이다.



## 낮선 반항아의 얼굴, 시립극단 차광영 씨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연극의 가장 낮은 곳,  
밀바닥부터 그저 몸으로 직접 부딪쳐  
배우가 된 사람이다.  
그것은  
말 대신에 파도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의 진하고 번뜩이는  
눈빛이 말한다.



오후 2시 25분. 불안하고 막막한 느낌이 드는 것도 그의 책임일까. 50평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텅 빈 극단 연습실에 앉아 있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서먹해서 신웃음을 자주 입가에 무는 사내가 정말 더 막막하고 외로울 것이다. 그는 얼마 전, 몸의 어떤 곳에 생긴 종양을 수술해서 앓음새마저도 엉겨주춤하다. 아, 연습장 저 안쪽 테이블에서 곱게 생긴 여배우 한 명이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다. 그걸 우리는 알지 못했다. 대사를 외우고 있는 것일까. 극단 연습실의 한가로움을 한탄하듯, 인생의 적막을 독백하고 있는 것일까.

공연이 없을 때에는 단원들 각자가 개인 연습을 한다. 요즘에는 8, 9월이나 11월에 있을 공연을 대비해 화술 연습, 신체 훈련, 독서, 영화 감상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배우는 남의 인생, 남의 삶을 몸으로 표출해 내는 직업이니까 만능 텔런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화술도 개성에 맞게 개발해야 하고, 감정도, 몸의 움직임도 늘 성격에 알맞게 연습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독서도 영화 감상도 그런 준비의 하나이다.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언제나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을 한 계단 한 계단 높은 곳으로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빈 극단 연습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마루바닥의 동선(動線)을 따라 수없이 반복해 걷는 발걸음 소리….

“극단에서는 1년에 4작품 정도 공연을 해요.”

연기 경력이 15년이라 해도 작품마다 캐스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립극단 단원이니까 출연을 하지 않아도 기본 급료가 있다. 부인, 사내아이 하나, 딸아이 하나 이렇게 네 식구가 살기에는 아주 빠듯한 수입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생활은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입고 있는 남방셔츠가 좀 값이 헐해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일지 모른다. 그러나 셔츠에 찍힌 재미있는 문양들이 아내, ‘제 스스로가 택한 직업이니까, 전 절대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그것이 오히려 감정을 막막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어느 날, 이처럼 낯선, 반항아 같은 배우 사내와 막막한 얼굴로 마주 앉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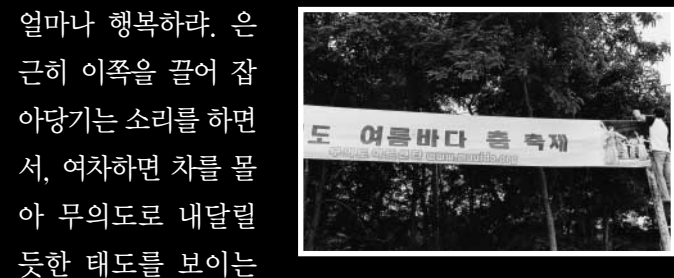
“인천 무의도 태생입니다. 무의초등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일 겁니다. 송의동으로 나와 살 무렵인데 하루는 할머니를 따라 용현시장 근처 가설극장 구경을 가게 되

었지요. 거기서 쇼도 보고 연극도 보았는데, 그게 그렇게 흥미로울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공부보다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일념이 마음속에 타올랐으니까요. 그리곤 오늘까지 미친 듯이 살아온 겁니다.”

동인천중학교, 운산공고를 마치자마자 그는 서울에 있는 ‘우리 극장’ ‘사조’ 같은 극단에 입단했다. 그는 이른바 연극학교에서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배우는 아니다. 연극의 가장 낮은 곳, 밀바닥부터 그저 몸으로 직접 부딪쳐 배우가 된 사람이다. 그것은 말 대신에 파도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의 진하고 번뜩이는 눈빛이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의 인생에서 그다지 크게 내세울 것은 못된다 해도, 그는 고단한 배우 수업 외에 틈틈이 공부하여 명지실업전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공부가 싫었는데도 그 나이가 되니까, 그나마 전문학교라도 나오기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다.

“8월 초, 5~6일 이틀간 무의도에서 제6회 무의도 춤 축제가 열립니다. 제가 축제조직위원장으로 이번 행사를 끌어가게 되었습니다만, 걱정이 많아요.”

한여름의 절정에서 그가 마음껏 정열을 불사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자신의 고향 섬을 위해서, 똑 닮은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활활 삶의 불을 지펴 올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랴. 은근히 이쪽을 끌어 잡아당기는 소리를 하면서, 여차하면 차를 몰아 무의도로 내달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가 아주 자신만만하고 으쓱하기 때문이다. 신바람이 나겠지. 갑자기 셰익스피어의 무슨 연극, 거기 나오는 한 명 ‘안토니오’의 이름을 들먹이며 성공을 빌어 주자는 말을 한 것은 사진 작가였다. 그가 의상실에서 입고 나온 양상치 잎사귀처럼 너울거리는 칼라가 달린 옷 때문에 얼른 떠오른 것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안토니오! 매혹의 도시, 물의 도시 베니스, 그리고 안토니오의 무의도 섬 축제라! 그런 엉뚱한 생각과 함께 그러자고 이쪽도 동의의 고개를 끄덕인다.

참, 말이 났으니 영화에서는 샤일록 역으로 그 유명한 배우 알 파치노가 나왔던가. 만약 이 사내가 베니스의 상인에 출연한다면 안토니오 역이 과연 맞을까. 친구를 위해 가슴의 살 1파운드를 기꺼이 떼어낼 운명의 증서를 작성하는 그 역할이 이 사내에게 맞을까. 오히려 샤일록 역할이라면 어떨까. 강렬한 눈빛과 술이 많은 눈썹 때문에도 그 악역이 잘 어울릴 것 같다. 완강하고 몰인정하고 황금만 아는 늙은 유대인의 모습. 그리고 앞에서 말한 ‘젊은이의 양지’에서라면 또 어떨까. 자신의 출세욕과 야망 때문에 옛 애인에 대해 살의를 품는 그런 이기적 인간상을 그리는 데에 그가 정말 썩 잘 어울릴까.

밝은 곳에서 보니까 턱을 이루는 선이 한결 부드럽다. 믿음직스러운 느낌도 든다. 그러나 하관이 조금만 더 가름하고 날카로웠다면 어땠을까. 반항적이면서도 우수한 얼굴이 되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무수한 표정이나 모습은 자신이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이를 먹고 내면에 인생의, 삶의 줄거리들이 쌓이노라면 저절로 생각하는 얼굴이 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깊은 인간의 얼굴을 진정으로 연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중간 중간 그는 가끔씩 발밑을 내려다본다. 젊은 배우의 얼굴. 낯선 옆모습. 바다를 보고 살아온 이 사내의 우수는 얼마나 깊은 것일까.



## 휴대폰 메시지

제각기 편리하게 지내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원하는 사람과 연락하고 대화할 수 있는 휴대폰. 참 편리한 세상이다. 편리한 만큼 이런저런 잡음도 있는 듯 하나 정신 차리고 살면서 쓰다보면 참 유용한 것 같다.



한 4~5십년 전만해도 전화가 귀했고 급한 통지를 할 때는 전보라는 것을 이용했는데 문자수대로 요금이 가산되어 요약하다보니 어떤 경우 해독에 혼돈도 있었다.

휴대폰은 보통 통화는 물론 45사 이내의 문자 메시지도 내마음대로 구성하여 보내고 받으니 편리하기 그지없고 옛날 전보에 비하면 아주 유리하다. 그래도 써나가다보면 그만 전할 뜻이 반동강이 되어 아쉬워 다시 새로 구성해본다. 줄이다보면 연결이 조금 이상해지기도 하지만 잘해서 보낸다. 통화를 하다보면 생각나는대로 이런저런 얘기 중에 헛말도 끼울 수가 있지만 문자로 전할때는 요약과 함축으로 꼭 필요한 말만 하게되니 간단하나마 묘미가 있고 나중에 마음이 편하다.

이제 나이가 들어 눈에 돋보기를 걸고 잔 문자판을 들여다보고 꼭꼭 눌러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시집간 딸들에게 사위들에게 그밖의 조카들에게도 격려와 사랑의 말한마디, 간단하나마 문자로 담아서 덩동덩동 착신음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면 재미도 있다.

정용태 (부평구 십정1동)

## 사랑의 징검다리 휴대폰



아이 아빠랑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메시지 수신음이 들렸습니다. 들은 척도 본 척도 안하고 제 일만 하고 있는데 일곱 살난 딸아이가 휴대폰을 들고 와서 메시지가 왔다고 읽어보라더군요.

어찌나 화가 났던지 아이의 걱정스런 권유에도 마다하고 뿔난 황소마냥 계속 탄창을 부렸지요. 잠시 잊고 있던 터에 아이는 낮잠이 들고 개운치 않은 마음에 핸드폰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보 나도 당신 사랑해, 나도 아가 미안했어...’??? 엉 웬소리? 난 아무말도 안했는데... 애 아빠의 다소곳해진 화해모드에 뜨악해진 저는 휴대폰 메일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에는 이런 메시지가 송신메세지로 저장되었더라고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보고 싶고 사랑해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더군요. 애 아빠로부터 온 메시지를 읽은 아이는, 아빠에게 저 대신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호칭도 ‘아빠’가 아닌 제가 부르는 남편의 호칭인 ‘오빠’로 해서 짝꿍같이...

요 깜찍한 것이 제 엄마 아빠 사이에서 사랑의 징검다리를 놓고선 천연덕스레 코롱 코롱 낮잠만 자고 있지 뭐예요! 맞벌이 부부는 직장관계로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보니 마주보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유무선을 통한 대화가 전부일 때가 많아 때로는 서로의 진심이 채 오가기도 전에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경험하신 분은 다 알 겁니다.

저희 가정도 역시나 이들 부류에 속하다보니 사소한 것도 언어사용의 한계에 다다를 경우 언성만 높아질 경우가 허다하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서로에게 약속합니다.

아들 열 트럭 갖다줘도 못 바꿀 제 사랑스런 딸아이를 위해서 말이지요.

양진경 (중구 인현동)

## 휴대폰의 명복을 빌며



취직을 위해, 수십 군데 이력서를 내놓았습니다. 노심초사 휴대폰만 바라보고 살던 시절. 한번은 차를 몰고 강변북로를 달리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 길가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바지를 내리려는 찰나 목격한 무언가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휴대폰이었습니다. 아, 수세식 화장실도 아니고, 그 화장실은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의 상실은 크나큰 아픔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낸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애 갑자기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저는 얼른 대리점으로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새 휴대폰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휴대폰은 울리지 않습니다. 애! 화장실 아래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을 휴대폰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갖은 악취를 견뎌내어야 할 나의 휴대폰. 수개월간 동고동락했던 나의 휴대폰 녀석의 명복을 빕니다. 휴대폰아!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땐, 꼭 좋은 임자 만나라.

윤재영 (부평구 청천2동)

## 잘못된 문자로 운명을 쏘다

작년 겨울,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몸 건강히 잘 지내시죠? 얼른 조카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는... 저는 꽃다운 20대 중반의 나이에 미혼의 몸이건만... 이러한 문자를 받게 되니 아주 당혹스럽더라고요. 물론 잘못 보내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기분이 몹시 상해서 상대방에서 문자를 회신했습니다. <저는 미혼이거든요. 문자 잘못 보내신 거 같네요>라고 말이지요. 그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하.. 미안해요. 너무 미안한데, 제가 밥이라도 살까요?> 여차저차 해서 서너 번의 문자를 주고받은 그 분과 저는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분은 메시지를 보낼 때, 숫자를 잘못 눌렀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공연 기획을 하는 분이었고, 저는 그 분이 기획한 공연에 초대되었습

니다. 그 분과 저는 어떤 사이가 되었나가요? 지금, 다정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기구한 휴대폰의 장난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들게 되었지요. 우리 사랑 아주 오래도록 변하지 않을거예요.

이소연 (남구 학익2동)

## 팔순 친정아버지의 휴대폰



작년 5월 팔순이 넘은 친정아버지께 자식들이 조금씩 돈을 보태 핸드폰을 사드렸다. 다리가 불편해 거의 집안에서만 소일하고 계신지라 “다 늙어 갈 곳이 한 곳 뿐인디, 뭘 놔의 휴대폰을 사왔냐”하시는데 표정으로 보아 싫지는 않으신 모양이었다. 쓰기 쉽게 단축버튼에 자식들, 가까운 친척, 자주 연락하시는 친구분을 입력해 드리고 자주 사용할 만한 기능들을 천천히, 자세히 설명 드렸다. “아이고, 뭐가 이리도 복잡하노. 차차 알게 되겠지마”하신다.

올 5월 우리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핸드폰 잘 쓰고 계시지요?”하며 핸드폰을 만져보게 되었다. 그런데 아뿔싸, 열어보는 순간 확인해 보지 않은 문자47건, 음성메시지 9건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 통화는 자주 하지만 휴대폰에 재미도 붙여보시라고 가끔 문자도 보내고 농담도 날리고 손자 손녀들이 애교 섞인 음성메세지도 남기곤 했었는데 전혀 보지 못하신 거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버지, 저희 불찰을 용서하세요.

선미림 (부평구 삼산동)

## 휴대폰을 수장시키다

인천에서 태어나 36년을 살다가 올해 1월에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청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모님과 친지들이 인천에 살고 계셔서 자주 가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10년이 좀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회사에 입사한지 몇 년이 안되어 용돈을 모아서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그 해 가을에 아버지와 인천국제공항

근처의 무의도로 망둑어 낚시를 갔습니다. 휴대폰을 상의 주머니에 넣으면 바닷물에 떨어뜨릴 것 같아서 바지 오른쪽 앞 주머니에 넣고 앉아서 낚싯대를 손질한 후 일어나서 낚싯대를 바다에 집에 넣으려다 그만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바닷물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황당함이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그 후로 바지 주머니에 무엇을 넣었을 때마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사시면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오원택 (충북 청주시)

## 마음 약한 남편

얼마 전 큰 딸아이가 12번째 생일을 맞았다. 아이가 작년부터 휴대폰을 사달라며 조르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때가 이른 것 같아 선뜻 사주질 못했다. 남편이 시험에서 올백을 맞으면 사준다고 아이와 약속을 하였다.

시험이 끝난 어느날 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시험 잘 봤냐는 물음에 대답은커녕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알고 보니, 아깝게 하나가 틀린 것이다. 딸아이가 속상해하는 모습에 내 마음도 아팠다. 친구는 3개 틀렸는데도 휴대폰을 사주었는데 왜 자기는 안 사주냐며 어리광을 부린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라며 나는 다음에 올백을 맞으면 사준다고 못을 박았다.

속상해 하는 아이가 안쓰러웠는지 남편은 다음날 딸아이의 휴대폰을 사왔다. 예쁘게 포장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환하게 웃던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았다.

그날 저녁 아이는 자신의 베스트프렌드에게 문자도 보내고, 자신의 사진도 찍어 저장하며 행복해 했다. 휴대폰을 꼬~옥 쥐고 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진작 사줄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영아! 지금 휴대폰이 너에게 보물 1호라고 말하지만 언젠가는 귀찮아질지도 모르겠다. 휴대폰이 생겼어도 우리 예쁜 딸 하영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거 알지? 사랑한다. (요금 많이 나오면 휴대폰 압수대!!)

황금숙 (서구 가정3동)

## 다음달 글의 테마는 ‘편지’

다음달 테마는 ‘편지’입니다. 편지에 얹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화면 왼쪽 프레임 하단의 ‘월간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8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 인천 물 사랑 사진 공모전 열립니다



- 기업 메세나(mecenat)를 통한 제3회 인천 물 사랑 사진공모전이 열립니다.
- **작품주제** : 인천지역의 물을 소재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물 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작품
  - **출품규격 및 수량** : 11"×14" (컬러·흑백사진), 1인당 3점 이내
  - **접수기간** : 9월 1일(금)~22일(금)

- **접수요령** : 인화한 사진과 참가신청서를 함께 제출 (접수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접수 가능)

※참가신청서는 인천녹색연합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심사결과발표** : 10월 11일(수)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 인천일보(www.incheontimes.com) · 인천녹색연합(www.greenincheon.org) 홈페이지 게재

-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일반부문(대학생 포함)			학생부문(초·중·고등학생)		
대상	1점	상장 및 상금 300만원	대상	1점	상장 및 노트북
금상	2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금상	2점	상장 및 디지털카메라
은상	4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은상	4점	상장 및 MP3
동상	8점	상장 및 상금 30만원	동상	8점	상장 및 문화상품권(10만원)
입선	40점	상장 및 상금 10만원	입선	40점	상장 및 문화상품권(3만원)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출품료는 없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계양구 계산4동 1062 하이베라스 D동 712호 인천녹색연합(548-6274) / 남동구 시청앞길 25 인천광역시청 물관리과 (440-3053~5)

### 장묘문화센터 윤달 화장시간 연장운영



의 4회차는 일반화장 예약으로 운영하고 5회차(오후 6시)를 신설해 개화장을 인터넷예약 또는 방문접수를 받습니다.

- **화장으로 연장 운영기간** : 8월 24일(목)~9월 21일(목)

- **예약접수**

- 1차~4차(일반화장예약) : 인터넷 예약접수
  - ※1차~4차 일반화장 미 예약시 개화장 예약가능
- 5차(개화장 예약) : 인터넷 예약접수 또는 전화, FAX, 방문접수
- 동일 접수자의 일일 개화장 접수는 3기 이내로 제한

- **추모의집 운영시간** : 오후 7시까지 연장

문의 \_ 가족공원장묘문화센터 (507-1207, 1208, fax 507-1205)

### 제2회 인천시 재활용품 공모전 열립니다

- **공모기간** : 8월 16일(수)~9월 15일(금)
- **공모분야** : 초등부, 중 · 고등부, 일반부(대학생포함)
- **응모자격**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 **제출서류** : 신청서(인천의제21 홈페이지(www.igenda21.or.kr)에서 다운로드) 1부
- **작품주제** : 자유(재활용품을 이용한 1인 1점)
- **작품규격** : 가로·세로 각1m x 높이 1.5m이내, 중량 10kg이 하
- **접수처**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실(구월동 씨티은행 본점 8층)
  - ※타 공모전에 입상하였거나 폭발성 등 안전의 위험이 있는 작품 제외
- **입상작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입상작 선정(총 106명)**

부문별	대상(1명)	금상(각2명)	은상(각3명)	동상(각10명)	장려상(각20명)
초등부		30만원	10만원	5만원	3만원 (도서상품권)
중·고등부	100만원	40만원	20만원	10만원	3만원 (도서상품권)
일반부		60만원	40만원	20만원	3만원 (도서상품권)

※미입상 작품중 200명 한정(접수순) 도서상품권(5천원) 제공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예정)〉

- **입상작 발표** : 9월 28일(목)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홈페이지(www.iagenda21.or.kr) 게재 예정
- **시상식** : 10월 16일(월) 오후 2시 인천시청 대회의실
- **당선작품 전시** : 10월 16일(월)~20일(금)(인천시청 중앙홀)

문의 \_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440~1544), 시 폐기물자원과 (440~3573)

###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상담실 이용하세요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상담실에서는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다양한 종합문제를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 **종합상담**

- 상담내용 : 가족·신상·이혼·가정폭력·성폭력·아동·건강문제 등
- 상담실 : 여성복지관 내(434-6436~7, 434-0182)
- 간이상담실 : 인천지하철 부평역사 내(522-0154)
- 사이버상담 : http://women-center.incheon.go.kr → 여성상담 → 사이버상담

- **변호사 법률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오후 4시

-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상담**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오후 6시
  - ※법률·정신건강상담 : 사전 예약 후 당일 내방 및 전화상담

- **가족방문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 신청자 모집**

- 대상 : 가족문제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가정 및 가족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정
- 방법 : 전문상담원 방문상담, 가족치료전문가 면접상담 및 치료
- 내용 : 가족상담을 통한 가족 내 문제 해결 및 상담결과에 따른

유관기관 연계 및 심리검사, 가족치료 지원

- **상담자원봉사자 (관련교육이수자) 모집** : 연중 수시
- **자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용 시청각 자료 대여**

문의 \_ 여성복지관 상담실 (434-6436~7, 434-0182)

###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무상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방사무소는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9월 1일(금)~14일(목)
- **지원대상** :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로서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대학(전문대학 포함) 등의 정규학위 과정 중 신청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이 80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심사, 선발
- **지원금액** : 본인 부담 학비(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일부 또는 전액(학기당 200만원, 1인당 총 800만원까지)
-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고용보험납부 근거서류, 수업료 납부영수증,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학자금 지급** : 신청서류의 확인,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 통지 후 지급
- **기타** : 지역의 중소기업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면 인력개발을 위한 계획수립과 자문에서부터 학습과정과 평가단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_ 인천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지원팀 (818-2181-3)



일 정	내 용	비 고
일 시	8월 9일(수) ~ 11일(금)	등·하교 진행
장 소	강의- 재능대학 / 답사-인천근대개항장	
참가대상 및 인원	초등학생 4 ~ 6학년, 중학생 1학년	선착순 30명
참가신청	7월 13일 ~ (홈페이지 접수 www.haeban.org)	문의 (761-0555 )
참가비	30,000 원 (간식비, 교재비, 실습비, 재료비)	우체국 03531-01-001006 (예금주 : 해반문화사랑회)
주최·후원	사)해반문화사랑회, 문화재청, 재능대학 사진영상과	

### 2006년도 무용교실(하반기) 안내



인천시립무용단에서는 인천광역시 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006년 무용교실(하반기)을 개최합니다.

무용교실은 초급반과 작품반으로 구분하여 기초부터 작품에 이르기 까지 단계 구성에 차등을 두어 시민들에게 폭넓은 한국무용의 향수를 느끼게 될 것이며, 수업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한국 무용을 느끼고 익히며 나아가 우리의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 : 8월 29일(화)~12월 12일(화)

매주 화요일 1회(총16회)-초급반 A / 초급반 B / 작품반

- **장소** : 인천시립무용단 연습실 I , II

- **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일반시민

- **강의세부내용**

기간	구분	시간	요일	수업내용	정원	비고
8월 29일 ~ 12월 12일	초급반 A	15:00~16:20	화	기본 움직임 및 작품	50명	신규모집
	초급반 B	16:30~17:50	화	기본 움직임 및 작품	50명	
	작품반	16:30~17:50	화	즉흥무	50명	

- **접수기간** : 8월 21일(월)~23일(수)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방문 (1반에 선착순 50명)
- **무용교실 수료발표회** : 2006년 12월 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 사무실 (438-7774, 420-2788)

## TOY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근대 – 해반문화학교 열립니다

해반문화학교는 문화 및 예술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초등학생들에게 인천사랑과 문화교육을 실천하는 문화행사입니다. 올해 개최하는 제10회 해반문화학교에서는 가정마다 많이 보급화 되어 있는 디지털카메라의 올바른 사용법 및 촬영기법을 배우고,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이론강의, 현장답사 등을 병행하여 아이들에게 사진을 통해 인천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인천은 100년전 개항을 하면서 서양근대문물들을 제일 처음 받아들인 곳입니다. 지금도 근대개항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인천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들을 지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들여다봅니다. 아이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인천근대문화유산을 찍고, 배우면서 인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의** \_ 해반문화사랑회 (761-0555, www.haeban.org)



### 인천의료원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소외계층 및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 8월 22일(화)~24일(목)
- 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내과 2)
- 진료시간 :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 검진명 : 간기능검사
- 검진인원 : 100명
-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금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478, 580~6651~5)

### 미추홀문화회관 가을학기 수강생모집

미추홀문화회관이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양하고 이론뿐 이 아닌 실생활과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강좌 위주의 다양한 강좌와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무료 강좌 개설 등 내실있는 프 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접수기간 : 8월 14일(월)~9월 9일(토)
- 강좌기간 : 9월 4일(월)~11월 25일(토) (3개월)
- 장소 :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구/인천여고)
-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

- 어린이 : 어린이 풍물 / 어린이 서예교실-한문· 한글 / 어린이 수 학 / 어린이 한자 / 어린이 중국어
- 성인 : 서예 교실 / 서양화 - 유화기초반 / 성악 - 초급 / 인천향토 춤 사위 /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 / 내 자녀 학습 지도를 위한 마 인드맵 / 디카 필카! 사진 촬영 / 일어 회화 / 외국인을 위한 한국 어 회화 / 중국어 회화 / 실버한국무용 / 생활원예 / 프레스 플라워 / 우리나라 문화유산 탐방

〈전문인 무료 설명회〉

수시 논술·고술 대비 학부모 설명회 / 창업하기 쉬운 예쁜 손글씨 배우기/ 직장인 빨리 댄스/ 섹시 빨리 댄스/ 연말 모임을 위한 나이

트 리듬 댄스

〈정규강좌〉

공예 / 창업반 / 자격증반 / 미술 / 무용 / 음악 / 국악 / 어학 / 교양 / 건강 / 스포츠 / 미용 / 창의력 계발 / 학습 계발

문의 \_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 열립니다

나눔장터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이웃간 ‘나눔과 순환’ 을 실천하고 인천의 감동적인 ‘볼거리 생활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인천사랑운동입니다. 나눔장터 정례화로 환경 과 경제를 살리는 자원순환사회를 형성하고 시민 환경교육 학습의 장 으로서 확산 및 수익금(10%)을 소외계층에 환원합니다.

- 일시 : 8월 26일(토) 오후 1시~오후 4시
- 장소 : 인천중앙공원(인천버스터미널 건너편)
- 참가대상 : 시민, 가족, 초·중·고생, 동호회 및 비영업적 일반단체 등
- 운영주체 : 인천YWCA
- 하반기 월별 나눔장터 운영계획
  - 8월 26일 : 장난감 아나바다
  - 9월 9일 : 소품 아나바다
  - 9월 23일 : 운동용품 아나바다
  - 10월 14일 : 도서 아나바다
  - 10월 28일 : 정리행사 아나바다

※일정 및 주제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가신청 및 문의 \_

인천YWCA (424-0524), 인터넷 (www.happynaum.com)

### 어린이의 행복찾기에 동참해 주세요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대로 고통받는 아 동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주변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발 견하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여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야겠습니다. 본 기관은 신고자의 신 분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고, 상담원이 직접 현장에서 사 실을 확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사이버상담 및 신고 : www.ic1391.org (아동학대신고란)
- 신고전화 : 032) 1391

• 아동학대 수호천사(자원봉사자 모집) : www.ic1391.org

문의 \_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434-1391, 신고전화 032)1391, Fax 439-1391)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집

간석4동에 위치한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미술교육과정 등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과정명

- 미술교육과정 : 미술치료(1단계, 3단계, 4단계), 서양화, 사진영 상, 플라워디자인과 전례꽃꽂이
- 전문지도사과정 : 아동미술실기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 노인교 육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독서지도사

• 모집기간 : 8월 26(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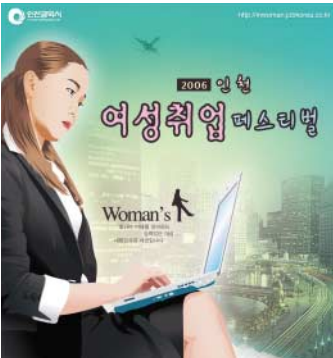
• 교육기간 : 8월 28일(월)~12월 9일(토)

• 장소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간석4동)

문의 \_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438-8131~4, www.iccu.ac.kr/life)

### 2006 인천여성 취업페스티벌 열립니다



용돼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일시

- 온라인박람회 : 9월 5일(화)~22일(금)
- 오프라인박람회 : 9월 15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 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 (연수구 동춘동 이마트 옆)

• 대상

- 구직자 : 여성 취업준비생, 여대졸업생(예정자), 주부, 이·전직 준 비자, 여성실업자 등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인천지역 여성 3천명
- 구직기업 : 50여개 내외 기업체

• 사전접수 : 8월 22일(화)~9월 14일(목) www.iwwc.or.kr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714), 인천여성취업센터 (441-2456)

### 5·31 지방선거,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열람 안내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정치자금 의 수입·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누구든지 열람 및 사 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보고서 열람 및 사본교부

- 기 간 : 7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3개월간)
- 신청권자 : 누구든지
- 열람·사본교부대상
  - ▷열람 : 재산상황, 수입지출내역, 영수증, 예금통장사본
  - ▷사본교부 : 재산상황, 수입지출내역
- 열람·사본교부처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지도과)

• 방법

- 사본교부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본교부에 필요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 사본교부 비용은 B4용지이하 1매 250원이며 1매 초과마다 50원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대한 이의신청

- 기간 및 신청권자 : 열람기간 중 및 열람자 중 이의가 있는 자
- 방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의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대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에게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

문의 \_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425-3939)

### 예산편성에 시민의견 들습니다

우리는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이 토론의 장에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시민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 도출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방향을 찾습니다. 시민여러분 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8월 29일(화) 오후 2시

• 장소 :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일반시민, 시·군, 구의회 의원, 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 토론내용 : 2007년 인천시 예산편성 방향

문의 \_ 시 예산담당관실 (440-2191~2)

## 사업 고민 짜~악 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컬러 기준)		
표4 (맨뒤 겉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심 속 인어아가씨

이글거리는 태양이 도시를 후끈 달굽니다.  
도심의 분수연못은 아이들 차지가 되고 맙니다.  
학원가는 길에 '퐁당'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퐁당'  
노천풀장이 된 이곳에서 물장구치고 개해엄치며 먹을 갑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캐리비안베이로 워터파크입니다.  
지나가던 어른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개울가에서 놀던 시절이 잠시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까르르~ 아이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여름 한낮을 보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배꼽시계' 만 작동합니다.

(인천시청 앞 음악분수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생일케익도 떡  
이젠 떡으로!



전임, 취임, 축하, 창립, 생일, 약혼, 결혼기념일,  
선생님, 어르신 찾아뵈실 때, 운전면허증 딴 날,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날엔  
우리 떡, 떡케익, 떡 선물세트는  
특별한 날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떡케익대표브랜드

문의전화  
1544-1582